

정책 2013-00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전략 분석 연구

2013년 6월

연구책임자: 임천순(세종대학교)

교육부

정책 2013-00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전략 분석 연구

2013년 6월

연구책임자: 임천순(세종대학교)

공동연구원: 고장완(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원: 최현영(성균관대학교)

연구보조원: 박지희(성균관대학교)

이 연구는 2013년도 교육부 정책연구개발비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교육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1
3. 연구 방법	3
II.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의 국내 동향	4
1. 글로벌 인재론	4
가.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글로벌 인재	4
나. 글로벌인재 개념	9
다.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유형	11
라.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주요 내용	13
마. 외국인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개관	14
2. 고등교육의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 주요 정책 동향	16
가. 국가의 국제화 정책 현황	16
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22
3.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과 프로그램 성과	41
가. 고등교육 국제화의 양적 성장	41
나. 글로벌 노동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필요	41

III. 영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 분석 49

1. 영국 정부의 대학 및 대학원 정책 49
 - 가. 영국 고등교육정책 개관 51
 - 나. 영국 고등교육정책과 인재양성 52
 - 다. 영국고등교육 정책의 특징 58
2. 영국 대학의 글로벌 인재양성 사례 60
 - 가. 워릭 대학교 University of Warwick 60
 - 나.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 IOE 69

IV. 미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 분석 79

1. 미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개관 79
 - 가. 고등교육 국제화 개관 79
 - 나. 미국 대학의 국제화 현황 80
 - 다. 미국 고등교육의 인재양성 정책 84
2. 미국 대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 사례 89
 - 가. 학생 선발 89
 - 나. 학사관리 91

V.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글로벌 인재양성

방안 94

1. 영국과 미국대학의 인재양성 모델 분석 94
2. 한국의 인재양성 모델 탐색 95

VI. 연구 요약 및 제언	97
1. 연구 요약	97
2. 제언	99
 <참고문헌>	 102

표 목 차

<표 II-1> IQRP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6
<표 II-2>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유형별 목적	2 1
<표 II-3> 교과부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교류사업 현황(2012 예산기준)	4 1
<표 II-4> 주요국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주요 특징 비교	5 1
<표 II-5> 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현황	3 2
<표 II-6> 국내 외국기관 유치 예정 목록	4 2
<표 II-7> 교육과정 공동운영(공동·복수학위제) 운영 예시	5 2
<표 II-8> 한국의 유학 수입 및 지출 동향	7 2
<표 II-9> 외국인 유학생 증가추이	8 2
<표 II-10> 국내 외국인 교원 수	0 3
<표 II-11> 국내 대학들의 영어강좌 비율	1 3
<표 II-12> 국내 대학들의 전공수업 영어강좌 비율 순위	3 3
<표 II-13> 학생교류 유형 (8개교 사례)	4 3
<표 II-14> 해외 연수 및 교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	7 3
<표 II-15> 글로벌인재 선발 제도 및 양성 프로그램	8 3
<표 II-16> 대학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내역	0 4
<표 II-17>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개황	3 4
<표 II-18>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	7 4
<표 III-1> 2010/11, 2011/12 출신국가별 학생 수와 변화비율	9 4
<표 III-2> 영국(UK) 유학생들 출신국가(EU 외 지역) top 10	0 5
<표 III-3> 2011/12 학년 출신국가별 학부, 대학원과정 학생 수	1 5
<표 III-4> 워릭대학의 연구·학문 (research and scholarship) 발전 방안	1 6
<표 III-5> 워릭대학의 국제화 방안	3 6

<표 III-6> 위력대학의 지속적 발전 방안	4 6
<표 IV-1> 미국의 풀브라이트 사업 주요 내용	9 8

그 림 목 차

[그림 III-1] 상위 20%와 하위 20% 고등교육 참여 비교	3 5
[그림 III-2] 영국 고등교육 참여 동향	45
[그림 III-3] 2008년 Warwick 졸업생 취업률	8 6
[그림 III-4] 2010-2012 신입생 구성	5 7
[그림 IV-1] 미국 대학의 종합적 국제화 모형	1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글로벌 인재양성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국제화 제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세계 각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학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글로벌인재 양성 정책취지에 따른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 및 글로벌 인재양성 제도의 진단과 재설계가 시급히 필요하다.
 - 지금까지 BK 21등 우수 연구인력 양성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사업/프로그램은 주로 연구력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력 증진이라는 비교적 협소한 성과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서 요구되는 글로벌 인재양성과는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제도는 특히 질적인 면에서 학문연구의 수월성 추구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직업구조의 전문화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현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미래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특히, 고등교육 단계 양성제도(학부-대학원 포함)를 새로운 패러다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특히, 지금까지의 글로벌 인재양성제도의 접근방식과 정책모형을 다시 점검하고, 해외사례국의 제도를 심층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도개선을 위한 전

략과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동 정책연구에서 제안한 전략과 방안을 토대로 고등교육제도를 재설계하여 대학의 국제화와 글로벌 인재양성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가 수행할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정책과 고등교육제도 개편 환경 분석
 - 고등교육의 수요변화 분석
 - 글로벌 시대의 인재수요의 변화 분석
- 현황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 진단과 원인 분석
 - 고등교육 국제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성과 진단과 분석
 -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재 양성 체계의 진단과 문제원인 분석
 - 우리나라의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과정과 경로 분석
-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제도관련 해외 유사제도 사례분석
 - 국가별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 모형/모델 분석
 - 선진국, 특히 미국, 영국 등 서구 대학들의 미래형 글로벌 전문인재양성 과정과 경로 분석
 - 대학과 대학원 수준 유학생 진학 경로 조사분석(성공과 실패 사례포함)
- 해외사례가 시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한국적 모델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방안 도출
 - 제도개편 방향과 전략 마련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 제도 및 프로그램의 다양한 모델 분석.
- 대상국의 미래인재 양성전략 및 유사제도 운영관련 문헌분석

○ 글로벌 인재양성제도 운영의 해외사례 분석

- 해외 사례국 국제화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현황 파악과 면담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특히 선발과 학사관리 체계 및 프로그램사례 집중 분석.
- 우리나라 유학생의 글로벌 이동 및 전문화 경로 분석

○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협의

- 글로벌 인재양성과 관련된 국내제도의 문제진단 및 원인분석을 위한 의견 수렴.
- 해외 고등교육 국제화프로그램 운영 및 유관기관 관계자 면담.

○ 소형 워크숍 개최

- 전략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회의 및 mini-workshops (국내·국외 전문가) 개최
- 고등교육담당자, 기업 인사 채용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의 역량과 평가 심층 협의

II.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의 국내 동향

1. 글로벌 인재론

가.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글로벌 인재

- 1990년대 중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가 출범하면서 교육 서비스도 국가간 협상대상에 포함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와 대학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화를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게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에서 국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도 국제화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글로벌 인재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 대학의 국제화 논의 속에 내포된 글로벌 인재에 관한 개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국제화에 관한 대표적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 Knight(2003): 국제화는 대학조직차원에서는 대학의 연구, 교육, 봉사 기능에 국제적 차원이나 관점을 통합시키는 과정이며, 개인적 차원으로는 대학의 구성원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이병식, 2006: 281-282)
 - Schoorman(2000): 국제화는 학생들이 글로벌한 상호의존적인 환경 하에서 일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 태도, 기술을 기르는 교육적 과정
 - 양병무 외(2006): 근로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외국어 특히 영어 구사 능력과 외국문화의 이해 및 습득과정으로 좁게 정의. 이를 위하여 대학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교수, 직원의 국제화 역량 제고가 시대적 요청이며 수요자인 학생의 핵심적 기대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

서는 해외 유학 및 연수 등의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외국어 강좌 개설 및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의 노력이 포함

- 이병식 외의 연구(2004):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추진 방안을 교류(학생, 교수, 행정직원의 교환, 연수, 외국교수 초빙, 국제회의 개최, 연구협력, 벤치마킹), 교육 프로그램(국제학 전공, 복수학위 프로그램, 해외 분교 설치),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Global lounge, Buddy, Event days, BBQ party 등), 해외 자원봉사, 원격교육(사이버교육, 온라인교육 등)의 5가지로 분류
- 김현택(2005): 고등교육이 국제화의 결과를 상호이해 증진을 추구하는 순수한 형태의 국제교육 교류, 대학교육을 받은 고급 전문 인력의 특정 국가 유입, 해외 유학생의 등록금 수입을 자국 고등교육기관의 예산 확보방안으로 활용, 해외 저명 대학 모델을 토대로 국내 고등교육 인프라 보완, 대학의 역량 강화로 봄
- 김혜숙(2006): 학부교육 국제화의 의미 혹은 개념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간에 쌍방향 인적 교류의 확대, 영어 사용 강좌, 국내외 대학간 학점 인정, 학위 및 자격증의 국제화, 분교 설립 등을 포함하는 대학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국제학부, 지역학 전공학과 등을 통해 외국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 대학이 국제적 수준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
- 유성상: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국제화가 대학구성원의 국제적 역량(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다문화 민감성, 연구역량 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를 견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양성에 있다고 보아야 함(유성상, 2012:20)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표는 활동적 측면, 가치적 측면, 역량적 측면, 과정적 측면으로 분류. 개인, 조직, 국가 등 여러 차원에서 논의 되고 있으며, 국제화의 접근 방법과 관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정의한다.

○ OECD의 IQRP(Internationalization Quality Review Process)의 국제화 지표: 글로벌 인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학술프로그램 및 학생 영역을 살펴보면 교육과

정의 국제화(지역학과 외국어 전공, 학위 취득프로그램, 교수학습 과정), 자국학생의 국제적 활동이나 학술경험 지원 정책 정도, 외국학생의 유치 전략 및 적응 지원, 해외연수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반영 및 효과가 국제화 지표이다(최정윤, 2008).

<표 II-1> IQRP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영역	부분	지표
정책 및 전략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에게 있어서 국제화가 왜 중요한가?(이론적 근거) • 각 기관이 국제화에 대해서 내세운 정책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정책이 명시된 문서를 첨부하라. • 기관의 전반적인 전략 구상과 국제화 전략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밖의 관련 정책 영역들 사이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 기관의 전체적인 전략 계획에서 봤을 때 기관의 행정가, 교수, 학생들은 국제화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국제화 정책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의 구조는 어떠한가? • 국제화 정책 및 전략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 • 기관의 지도부, 행정부, 교수 및 학생들은 국제화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는 데 각각 어떠한 도움 및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조직 및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의 어떠한 부서/단위/직위가 국제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가? • 국제화 활동들에 대한 수행의 직접적 책임은 어떠한 단위에서 맡고 있는가? • 국제화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단위/개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체계(공식적/비공식적 모두) 및 보고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가능하다면 조직도를 제시하라. • 국제화 전략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의 지원 구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 현재의 정책 및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조직구조 및 지원구조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계획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및 학과 수준의 계획에 국제화가 어떻게 들어가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 국제화 노력들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러한 체계가 국제화 관련 노력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국제화를 포함하여, 기관 내/외부의 전반적인 질 보증이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가? • 국제화 관련 계획 및 평가 과정의 개선을 위해 어떤 점들이 필요한가?
조직 구조 및 지원	재정 지원 및 자원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를 위한 기관 내부/외부의 지원 구조는 어떠한가? 이러한 재정지원은 국제화 관련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 • 국제화를 위한 자원 할당(기관 전체적인 차원과 학과 적 차원에서 모두)의 구조는 어떠한가? 이러한 구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 국제화 관련 기관 내/외의 재정 지원을 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 기관의 수행 과정은 어떠한가? 이러한 과정은 얼마나

영역	부분	지표
학술 프로그램 및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가 있는가? 국제화 실현을 위한 재정 할당 및 재정 확보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원 서비스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화 활동들을 지원하고 개발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나 제반시설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기관 차원의 서비스 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가? 캠퍼스 내의 편의 시설(ex. 도서관)이나 교과 외 활동은 어느 정도나 국제적, 혹은 다문화적 성격을 띠는가?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가? 각 기관이 국제화 전략 및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나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점들이 필요한가?
	교육 과정 의 국제 화: 지역 학과 외국 어 전공, 학위 취득 프로 그램, 교수 학습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학이나 외국어 관련 선택 과목(국제적 의사소통 및 문화 연구에 관한 교과목들 포함)들이 존재하는가?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다양한 학과의 교과목이나 과목 단위 등에서 발견되는 국제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국제화 관련 내용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해외의 고등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학위 취득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그것이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에 대한 예나 사례 연구, 문헌자료 등을 포함하는가? 그 영향은 어떠한가? ‘국제적 교실 환경’의 구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즉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해외 유학생들과 함께 학습을 하고, 의견교환을 하는가?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는 얼마나 되는가? 해당 기관의 지역학 연구나 외국어 관련 전공 개발의 측면에서 국제화 전략 및 정책에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교육과정의 국제화 수준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교수(teaching)와 학습 과정의 국제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자 교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국 출신 학생들 중 얼마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자 하는가?(해마다 보내고자하는 양적 목표) 학생들은 국제적 연구 프로젝트나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가? 학생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것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학생들은 국제적 활동/학습/연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정보 전달 통로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학생들은 국제적 학술 경험을 쌓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언어나 문화에 관한 준비) 그러한 준비과정은 효과적인가? 학습의 국제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외 국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유학생(일반 유학생 및 교환학생 모두) 유치 목표의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목표를 위한 측정 도구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해외 유학생 중 일반유학생(fee paying students)을 유치하고, 선발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내세우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전략의 목표는 무엇이며 또 그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가? 해외 유학생 중 교환학생(exchange students)을 유치하고, 선발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내세우는 전략은 무엇인가? 그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가?

영역	부분	지표
		<p>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학생들의 학문적 성공 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각 기관은 자국의 구조 및 환경에 해외 유학생들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적응시키는가?(교육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모두)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사회 적응 안내나 학문 관련 상담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 일반유학생(fee paying students)과 교환학생(exchange students) 관련 정책의 목표나 주안점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 해외 유학생의 통합 및 적응이나 이들의 유치 및 선발 전략의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해외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연수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얼마나 있는가? 이러한 프로그램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해외 연수기간이 교육과정에 얼마나 잘 반영되는가? 연수기간 동안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는 과정은 적절한가?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이것의 효과는 무엇인가? • 해외 유학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러한 평가 결과는 후에 프로그램 개발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 국제화 전략 및 정책의 전반적인 맥락 하에서, 각 기관이 해외 연수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 및 학문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고등교육기관/연구센터/기업 등과 함께 맺은 연구 협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기관의 후원을 받는 국제학 및 지역학 관련 연구나 연구소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효과는 어떠한가? • 각 기관은 국제화 연구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성공적인가? • 각 기관은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제는 무엇인가? • 각 기관이 국제적 학술대회를 열고 그것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국제 협력 연구를 지원해주는 기관 내/외에 존재하는 지원 구조는 무엇인가?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 국제화 연구 및 결과물이 교수(teaching)의 국제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 국제화 개념이나 의미는 궁극적 목표인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어느 수준으로 달성하고 있는가를 지칭하고 있음.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야 말로 국제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나. 글로벌인재 개념

- 인재란 성과와 관련된 개념으로써 현재수준의 성과향상을 위한 능력, 미래를 위한 잠재능력으로써 역량과 결부되어 있다(홍영란, 2008: 8-9).
 - Spencer & Spencer(1998)- 역량은 미래의 구체적인 성과와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질, 자기개념, 동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 역량에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과 기질, 특징, 가치와 같이 가시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 포함됨.
 - Spencer & Spencer(1993)- 역량은 성과와 분명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능력과 차별성이 존재.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 정의들이 성과와 관련되어 역량을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단기간 동안에 변화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잘 변화하지 않고, 오랜 동안에 걸쳐 영향을 발휘하는 능력임
- 역량은 인지적 차원과 정의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정의적 차원의 역량은 인간의 흥미·태도·감상·가치관·감정·신념 등에 관련되는 영역으로 소위 ‘국제적 마인드’라고 통칭되는 수용성, 의사결정력, 봉사정신 등의 역량이 이에 해당함. 인지적 차원의 역량은 외부의 대상이나 자극을 수용하여 개념화하는 능력을 총칭하는 인간행동의 한 측면, 혹은 인간의 지적 능력과 관련됨. 즉, 학력, 자격, 전문성 등의 역량을 일컫는다.
- 정부의 글로벌리더 양성
 - 한국과학창의재단(2009): 향후 세계무대에서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글로벌 소양 등을 겸비한 세계수준의 인재양성이 중요. 글로벌 인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목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 정부는 2008년에 국가경쟁력 강화 및 청년들의 해외취업기회 확대를 목표로 “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택한 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 추

진. 사업은 크게 해외전문가양성, 청년 해외취업, 청년 해외봉사단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청년층이 정책대상. 2013년 까지 해외 취업자 5만 명, 해외 인턴 3만 명, 해외 봉사 2만 명 등 10만 명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이 목표.

- 글로벌리더인재양성사업: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무대를 국내 노동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및 마찰적 실업도 완화하고자 실시하였다.
- 2008년부터 실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필수 지표가 반영된 포물러에 의해 성과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고, 나아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이 사업은 4년제 대학 성과 핵심지표에 국제화 수준을 지표로 명시하고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을 근거로 지표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 양병무외(2006): 대학생의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개인배경, 학력, 취업준비 요인 이외에 국제화 노력 및 외국어 역량이 있음을 밝힘. 특히 영어 능력은 토익점수, 독해력, 청취력, 언어소통, 문서작성, 평균 영어과목 학점 등 거의 모든 영어 능력 부분이 구직기간, 국제화 업무 배치 등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 글로벌 역량 또는 외국어 능력은 대학생이 직업세계로 이행 과정에서의 핵심역량 중 한 요인으로 간주. 영어는 글로벌 인재의 핵심적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임천순, 2010).
- 진미석 외(2007): 글로벌 역량을 대학생의 직업 기초 능력 중 한 요인으로 정의함. 글로벌 역량은 외국어 능력과 다문화 수용 및 이해능력으로 정의한다.
-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소통능력과 교류 경험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노동시장내에서 글로벌 역량의 확보가 중요해짐. 특히, 영어능력 및 국제적 경험, 특수한 전문기술의 습득이 중심됨. 그 결과영어 어학 연수 붐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다(임천순, 2010).
- 영어학습은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보상에 긍정적 영향을 보임. 외국어 능력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재학 중 영어

점수가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로 진입할 확률을 높이고 있다(박성재·반정호, 2006).

○ **글로벌 인재란 :**

- 인재(人材)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글로벌 인재는 다양한 차원의 국제화 개념 내에서도 범위를 한정해서 살펴봐야 함. 여기서는 인재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국내 이외에 다양한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국제화의 활동적 영역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음. 국제화의 활동영역에는 학위취득의 유학, 교환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 취업 등 교육의 목적이나 성과로 이루어지는 인적 이동과 교류를 말한다.
- 글로벌 인재의 범위를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적 이동과 교류의 활동차원의 국제화 범위로 제한하였음. 세계 노동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학력, 자격,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력, 의사소통능력 등 인지적 차원의 노동력을 갖춘 사람이다.

다.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유형¹⁾

- 글로벌 인재양성은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교육협력 또는 교육 ODA’의 관점에서 각각 그 의미와 목적을 정리할 수 있다. 고등교육 국제화의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인재양성의 의미는 크게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 볼 때 글로벌 인재양성은 국제적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제적 역량을 기른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 사람, 사상 혹은 생각이 넘나드는 ‘국제적인 마인드’의 개발(Hayden & Thompson, 1995), 대학 구성원의 국제적 식견과 능력 및 의지의

1) 남수경 (2012)의 논문에서 요약, 정리하였음.

고양(이병식, 2006) 등을 의미한다.

- 둘째, 조직 차원에서 볼 때 글로벌 인재양성은 고등교육기관의 프로그램과 조직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과 고등교육기관이 국제적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에는 국제교육프로그램 추진, 유학생 및 외국인 연구자 유치, 영어사용강화, 국내외 대학 간 학점 인정, 학위 및 자격증의 국제화, 분교 설립 등을 포함한다(양병무 외, 2006; 신현석, 2006).
-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고등교육 국제화의 관점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은 ‘학생 등이 자신의 출신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서 학위과정, 장·단기연수나 교류 등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적 안목과 태도를 습득하고 국제적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교육협력 또는 교육 ODA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은 ‘교육적 교류를 통해 한국의 교육발전경험과 한국적 가치를 개발도상국가에 전수하고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한국 내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II-2>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유형별 목적

구분		외국인 초청사업(In-bound)	내국인 파견사업(Out-bound)
고등교육의 국제화	개인차원	우수인재의 역량 강화와 평생 파트너십 구축	국제적 역량, 개방성을 갖춘 인재 양성
	조직차원	자국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국제성과 장점 프로모션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촉진
교육 ODA	개인차원	개도국 인재의 역량 강화	상대국 전문가 양성, 개도국 필요에 맞는 지원체제 구축
	국가차원	국가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상대국의 발전 역량 지원	국가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교류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 증진

-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교육 ODA의 관점을 종합해 볼 때,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사업 방향(외국인 초청과 내국인 파견), 과정(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대상

(대학(원)생, 중 고생, 교사 등) 등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다. 고등교육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대학(원)생이나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위 또는 비학위과정 외국인 초청 및 내국인 파견 사업 전반을 포함한다. 반면 교육협력이나 교육 ODA의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의 외국인 초청사업에 한정된다.

라.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주요 내용

- 2012년 2월 현재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크게 세 가지, 즉 GKS(Global Korea Scholarship),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 세계 학생 교육교류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세계학생 교육교류 지원사업은 한국과 중국 또는 한국과 일본의 양자간 중 고생 대상 교류협력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교육 ODA 관점이 적용되는 앞의 두 사업만을 대상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 GK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원)생 대상의 외국인 초청 또는 내국인 파견 학위과정 지원사업으로서, 최근 들어 특히 개도국 외국인 인재 초청사업인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지원’이 중심사업이 되고 있다. 반면 내국인 학생대상 사업은 점차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사업은 예비교사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초청 및 파견사업으로서 교육 ODA 성격이 강하다. 이 사업은 몽골과 4개국 국가 교사 또는 예비교사의 초청사업과 우리나라 예비교사의 상대국 파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2년 예산기준 재정 지원이나 수혜대상 규모면에서는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지원 사업(약 373억 4,100만원)’이 가장 비중이 크다. 그 다음으로 ‘한일공동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약 55억원)’, ‘국비유학생 선발·파견사업(약 33억 7,500만원)’의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교과부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교류사업 현황(2012 예산기준)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외국인 초청사업			내국인 파견사업		
	세부사업	연지원 인원	예산	세부사업	연지원 인원	예산
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지원	(관리)2,200 (초청) 400	37,341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기존)112 (신규) 20	3,375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지원	297	2,970	-		
	외국인 우수자비유 학생지원	200	1,260	-		
	주요국가대학생 초청연수	120	314	-		
	한일 대학생 교류	100	1,150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파견	100	5,500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	60	936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	60	936

마. 외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개관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추진철학, 목적, 사업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II-4>와 같다. 고등교육의 국제화나 교육협력 및 ODA의 추구라는 기본 방향은 일치하지만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추진철학이나 목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주요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에 따라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교육 ODA의 두 차원 가운데 어느 하나에 보다 강조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국무부(미국)나 외무부(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지원하는 경우 주로 교육 ODA 차원에서 외국인 초청사업에 비중을 두는 반면, 교육부(미국, 독일, 일본)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자국 대학이나 학생, 연구자 등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내국인 파견사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한편 외국인 초청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 하에서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대상 사업을 세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표 II-4> 주요국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미국 (Fulbright)	일본 (문부과학성 사업)	독일 (DAAD)	프랑스 (Égide)
시작	1946년	1954년	1925년 (1950년 재창설)	1960년
추진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무역 잉여금의 개도국 교육 재투자 • 미국적 가치관 전파 공헌(긍정적, 부정적 평가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교적 접근 (부정적 평가) • 유학생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인재양성을 통한 개도국 정치 안정, 경제 성장(개도국 위주의 전략) • 프로그램 성격의 변화(1990년대 이후): 지원프로그램에서 공동협력프로그램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그레브(아프리카 북서부 아랍권 4개국) 및 아프리카와의 관계 회복 및 상호이해 방안으로서 도입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상대국간에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국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인적네트워크 형성 •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일본인 학생 육성 • 일본 대학 등의 국제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국제사회에 대한 지적 차원의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학생의 외국대학 진학 지원 • 독일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학술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의 국제적 교류를 돕고 국가 간 상호 이해력 향상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사업 • 교사교환프로그램 • 국제교육행정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장학사업 • 내국인 장학사업은 2004년부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사업 • 해외 독일어 지원사업 • 개도국 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사업: 에펠장학사업, 프랑스인 해외유학 장학사업 • 연구자 교류프로그램: 위베르 퀴리앵 장학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의 4개 풀브라이트 사업의 경우, 학생(Fulbright Foreign Student Program), 학자 및 연구자(Fulbright Visiting Scholar Program), 교사(The Fulbright Teacher Exchange Program), 행정가(The Hubert H. Humphrey Fellowship Program)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되 각 사업간에 연계성과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 문부 과학성 사업의 경우 단기 교류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 학위과정 프

로그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 DAAD 사업이나 프랑스 Eglise 사업의 경우에도, 학생대상 단기프로그램과 장기학위 프로그램간, 학생대상 프로그램과 연구자나 학자대상 프로그램간에 연계성이 제도의 설계에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2. 고등교육의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 주요 정책 동향

가. 국가의 국제화 정책 현황

1) 문민정부에서의 국제화 정책(1993년~1997년)

- 이 시기는 1993년 UR 타결과 1995년 WTO체제 출범이라는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기임. WTO체제는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까지 국제 교역의 대상이 되는 무역자유화의 출범으로 무한경쟁 체제로의 편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능동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던 시기.
- 문민정부는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책으로 ‘능동적’ 개방화 전략 채택. 1993년 문민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서비스 부문은 UR 차기협상을 거쳐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에 한하여 점진적·선별적으로 개방”하고,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우수한 외국교육서비스의 국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힘(이경숙, 2007: 10).
- 능동적 개방화 전략에 따라 정부는 1993년 한미 투자환경개선위원회에서 1995년부터 학원시장을, 1996년 이후 고등교육기관을 개방하겠다는 합의함.
- 이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기 시작. 먼저, 외국대학설립허용규정을 담은 1996년 8월 「고등교육 대외개방 기본계획」을 발표. 1997년 2월 외국의 대

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법시행령 개정. 1997년 3월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허용. 기초과학·첨단과학기술·국제학·기타 대학별 특성화 관련 분야에서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

-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을 위한 법이 1997년 8월에 개정됨. 교육부는 「교육공부원법 개정: 외국인 학교설립」을 고시하고 12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1998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교로 외국대학설립을 부분 허용하며, 1999년부터 외국대학 설립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시기는 고등교육 대외개방 기본계획 확정하여,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 시기임.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 대학이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8일 지역연구 국제협력 통상관계 등에 필요한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45개 대학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심사, 이중 9개 대학을 집중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등 평가점수가 높은 5개 대학은 올해부터 2000년까지 5년간 해마다 32억원씩, 서강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등 4개 대학은 매년 10억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들 9개 대학은 97학년도부터 국제관계 대학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대학원을 확대개편, 학교별로 해마다 50~1백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해마다 이들 9개 대학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전문인력양성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대학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액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이 모두 서울소재 학교인 점을 감안, 내년부터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국민의정부에서의 국제화 정책(1998년~2002년)

-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에 비해 8차에 걸쳐 개혁방안이 발표될 정도로 고등교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전개한 것이 특징. 정부는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한 경제난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였기에,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 무게 중심을 두었고, 국제화 관련 사업도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제기.
- 국민의 정부 첫째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해외유학·연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시장개방을 통한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 확대, 국제대학원 설립 추진, 대학의 외국인 교수임용 확대, 건전한 유학풍토 조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제시했음(이경숙, 2007).
- 대표적인 정책들은 외국인 교수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1999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국립대학에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하였고, 2002년 1월에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육 분야에 기간제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또한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우수인력 양성 가시화를 위한 Brain Korea 21 사업 추진.
- 2000년에는 자비유학생 기준을 중학생 졸업 이상으로 완화하고, 2001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안)」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하려는 정책적 토대를 세운다.
- 2002년부터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 2002년 4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외국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외국 우수 대학(원)의 분교유치 및 국내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외국인교수 초빙사업 지원, 국제대학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경숙, 2007).

- 그 밖에도 우수 외국 대학원의 국내 유치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대학원의 국내 유치와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그 일환으로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설립주체 소유 의무화 규정 완화 및 임대 허용,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 면제, 이사정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교원 자격, 교육과정 운영 등 외국 우수대학원에 적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규정은 학칙 및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참여정부에서의 국제화 정책(2003~2007)

-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원칙과 목표하에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를 전략적으로 개방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 시기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 2004년 11월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트)’을 확정·발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 정책은 우수 해외인재 유치가 해외 우수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통해 국제무대 우군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보고 추진됨. 또한 무역 외 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 이에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유학관련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한국유학 홍보 강화, 효율적 행정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위해 장학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아시아 및 BRICs 국가 등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의 차세대 지도자 집중 유치, 우수 지방대학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능대학을 평가·선정하고 이에 따라 유학생 배정 추진, 기업과 연계, 취업 지원 등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 2005년 2월에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동운영 분야, 운영 주체, 수업방식, 교원활용 등에 대한 요건이 완화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2월부터 시행함.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현행 교육관계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교지(校地)·교사(校舍) 등의 임차를 허용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 가능하게 하였다.

- 2006년 7월에는 국제화 정책에 대한 총괄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11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확정·발표함. 고등교육 국제화의 기본 방향은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 한·미 FTA 협상 등 교육개방과 연계하는 한편, 고등교육 규제 완화와 일관성 유지에 있었음. 이 전략은 총 6가지로 먼저 우수한 외국 고등교육기관(시스템) 도입 및 교수교류·공동연구 활성화 전략이 있음. 다음으로는 학생·학점 교류 활성화 전략으로 복수 학위제를 추진하고, 대학 원생에 대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 국비 해외 유학생 지원 확대하려는 방침을 세움.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환경 개선 전략으로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좌 및 외국인 교수비율 확대,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교수아파트 등의 확충, 의료 지원 확대 및 출입국 지원을 통한 유학생 편의 제공하고자 하였음. 고등교육서비스의 해외수출 지원 전략은 유·무상 교육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수원국이 희망하는 경우 국내 교육기관의 분교 설치, 교육과정 이식, 유학생 유치와 연계하여 지원, 국내대학의 외국 분교 설치시 정부차원의 지원과 설립요건 완화, 정부 초청 유학생 프로그램 대폭 확대·개편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학의 국제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고, 국제교류 관련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대학 및 유학생 등에게 정보서비스 제공,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국제화 수준 반영 및 외국 분교 등에 대한 질 관리 체제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웠음.

- 그러나 이 방안은 구체적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정부가 바뀔수록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외국인 교원 임용 사업 역시 다른 국제화 사업들처럼 참여정부 들어 본격 추진, 2006년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에서 고등교육 국제화 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인 교수 채용 확대를 제기. 2007년 발표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에서는 외국인 교원 확충으로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지원하겠다고, 2006년 현재 22명인 국립대 외국인 교수 정원을 매년 300명씩 증원하여 2011년 1,200명으로 늘리는 방안 마련. 이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외국인 교수 초청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했으며, 2007년도 수도권 특성화 사업비에는 외국인 교수 초빙 비용이 포함해 지원하였다.

4) 이명박정부에서의 국제화 정책(2008년~2012년)

-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써 우수연구자 및 과학자 유치와 지원, 캠퍼스 아시아 등이 도입되었음. 2011년에는 국내대학 해외진출시 현지국가의 설립요건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고, 고등교육 국제화의 양적팽창에서 나아가 질적 관리를 위해 2008년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을 통해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2011년 우수 외국인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유학생 질 관리 강조하였다.
- 특히, 2012년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전략’이 새롭게 발표됨. 이 전략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해외 유학생 확보 필요성 증대, 외국인 유학생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해외로 나가는 국내학생도 증가하여 교육 서비스 수지 적자, 교육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필요에 의해 추진하게 된다.
- 이 전략의 비전은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두고, 우

수 외국인 유학생 2020년 20만명 유치와 국내 대학의 다양한 국제화 모델 마련을 추진 목표로 세웠다.

- 세부 추진과제로써 10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10대 과제는 1대 과제는 교육국제화특구, 국제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제완화, 고등교육 국제화 지원 기구설립 등 법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로 설정함. 국가간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해외 홍보 지원과 KS 재정지원, 석학급 해외 학자 및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매력적 유학환경 조성, 우수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유치, 해외인턴사업, Campus Asia 교류 본격화, EU-ICI 학생 교류, 고등교육기관 진출 등 교육과정과 학생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1) 외국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유치

가) 외국 교육기관 유치

-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법과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규준을 완화하는 등 외국대학의 분교 유치를 위해 각 부처별로 소관 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자체와 함께 학교부지, 시설 등 인센티브 제공하여 유치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는 못하였다.
- 광양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은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과 광양시가 합작으로 추진한 최초의 한국 분교(STC-KOREA) 유치 대학임.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 이후 첫 해외 분교로 2008년부터 개교하였으며 지자체와 정부는 학교설립비용과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액의 50%를 지원하는 등의 유치전략으로 분교 설립이 가능했다.

-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이외에도 독일 FAU 부산캠퍼스가 2011년 3월부터 개교하였으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한국캠퍼스는 2012년도 3월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음. 각 외국교육기관들의 재학생수를 살펴보면, 모집인원 대비 재학생수가 20명 내외로 충원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표 II-5> 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현황

(단위: 명, %)

지역	기관명	현황	재학생수	모집인원	충원율
광양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STC Korea	-설립주체: 네덜란드 법인 STC -개교연도:2008년 3월 -등록금(연단위):1,550만원 -설치교육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11	40	27.5
부산	독일 FAU 부산캠퍼스	-설립주체: 독일 FAU(Friedrich Alexander University) 공공법인 및 국영기관 -개교연도:2011년 3월 -등록금(연단위,기숙사비미포함): 1,600만원 -설치교육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16	100	16
인천 (송도)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한국캠퍼스	-설립주체:SUNY(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LLC -개교연도(한국):2012년 3월 -설치교육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	407	-

* 출처: 이종재(2012), p.30 인용.

-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및 선호가 낮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
- 2013년 9월 미국 조지메이슨대가 개교할 예정이며, 벨기에의 겐트대가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설립 승인 신청을 낸 상태이다.

<표 II-6> 국내 외국기관 유치 예정 목록

학교	특화 프로그램	개교	학생수
조지메이슨대(미)	경제학, 경영학, 국제학, 바이오정보학 등	2013.9(예정)	1,500(예정)
겐트대(벨)	바이오, 환경, 식품공학	2014.3(예정)	1,020(예정)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나) 외국 프로그램 도입

- 정부는 선진 대학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2005년에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 공동운영 범위를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국내대학 교수와 외국대학 교수의 협동수업은 해당 대학 간 약정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과정 공동운영 수업은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이경숙, 2007)하였다.
-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대학 분교 유치보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소요 기간이나 비용, 국내대학의 변화 촉진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국제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수학위제 운영 결과, 대학들의 협약 국가나 기관이 특정 국가나 특정 대학으로 편중되어 있음.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50%가 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미국의 대학들과 협정을 맺고 복수학위제를 실시하고 있음. 두 번째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학교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나 미국과 비교할 때 비율은 저조함

- 학사학위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2년, 협정 대학에서 2년을 수학하는 2+2 제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3년 수학 후 협정대학에서 1년 수학하는 학사학위제도가 두 번째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표 II-7> 교육과정 공동운영(공동·복수학위제) 운영 예시

국내대학명	학사학위 프로그램	국가	복수학위 협약 외국대학명
건국대학교	2+2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국민대학교	2+2	미국	University of Oregon
경북대학교	2+2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달라스
		중국	길림대학
경상대학교	2+2	중국	청도대학
			사천대학
계명대학교	2+2	미국	Eastern Michigal University
나사렛대학교	2+2	미국	Oklahoma City University
동국대학교	2+2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동아대학교	2+2	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대진대학교	2+2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쑤저우대학
대구외국어대학교	2+2	중국	사천사범대학
대구카톨릭대학교	2+2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Mankato
		중국	미시시피주립대학
명지대학교	3+1	호주	산둥대학
부경대학교	2+2	미국	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호주	노던주립대학
			그리피스대학
부산외대	2+2	호주	남호주대학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대학
		미국	하노이사범대학
상지대학교	2+2	중국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
	3+1		수도사범대학교
서울시립대	2+2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1	영국	Northumbria대학
전문대학교	2+2	중국	대련대학
숙명여자대학교	2+2	미국	American 대학
		일본	Ritsumeikan University

국내대학명	학사학위 프로그램	국가	복수학위 협약 외국대학명
		프랑스	L'Universite Paris Dauphine
송실대	2+2	미국	Towson 대학
세종대학교	2+2	미국	휴스턴대학
	1.5+2+0.5	중국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아주대학교	2+2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안동대학교	2+2	대만	일리노이공과대학
영산대학교	2+2	인도네시아	중국문화대학교
		베트남	Universitas Padjadjaran
우석대학교	2+2	중국	Vietnam Social Sciences & Humanities 국립대학
영남대학교	3+1.5	미국	산둥사범대학
전남대학교	2+2	미국	미국 Iowa 주립대학
청운대학교	2+2	필리핀	텍사스 주립대학 달라스
충남대학교	2+2	미국	라이시엄 대학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한남대학교	3+1	캐나다	노스다코타 주립대학
한밭대학교	2+2	미국	프로비던스 대학
	3+1.5	필리핀	미시시피 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	2+2	미국	라콘솔라송 대학
한양대학교 에리카	2+2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
홍익대학교	2+2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
		미국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주. '12.12. 기준 학사과정 복수학위 운영현황에 대한 대학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일부 사례를 추출한 것이며, 현재 국내대학이 운영 중인 과정의 전체목록은 아님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3.4)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은 고전적 국제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역대 정부들마다 유학생 유치 정책을 마련해 왔으며, 2004년 Study Korea Project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2012년까지 외국인 학생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

- 그 밖에 대학 국제화평가지표 및 사설기업의 국제화 지표로 외국인 유학생 수를 설정함으로써 대학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었음. 그 결과 지속적으로 유학생이 증가하여 왔다.
-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활성화 된 배경에는 정부가 해마다 증가하는 유학·연수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임. 대학 차원에서는 유학생 유치 사업은 유학·연수 수지 적자 개선 이외에 학생 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요한 목적.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방대학 정원 미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밖으로 눈을 돌려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표 II-8> 한국의 유학 수입 및 지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유학연수수지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수입액	15.9	12.6	28.0	44.9	54.4	36.3	37.4	56.6
해외지급액	2,493.8	3,380	4,515.0	5,015.3	4,484.5	3,999.2	4,488.0	4,470.6
유학연수수지	-2,477.9	-3,368.3	-4,487.0	-4,980.4	-4,430.1	-3,962.9	-4,450.6	-4,414.0

* 출처 : KEDI 교육통계연보,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그 결과 2012년 비학위과정을 포함한 전체 유학생수는 약 8만 6천명으로 2006년 3만 2천명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함.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비학위과정 학생수보다, 학위과정 학생들에 의한 증가율임. 학위과정의 유학생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 매년 전년대비 약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학사 과정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학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결과로 추정됨. 두 번째

로는 어학연수를 위한 학생수가 많으며, 석사학위과정, 기타연수생, 박사학위과정의 유학생 순으로 유학생이 많다.

- 외국인 유학생 수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지방대학의 유학생 수가 3배정도 더 많다.

<표 II-9> 외국인 유학생 증가추이

(단위: 명, %)

연도	총계	전년대비 증가율 (학위과정)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전문학 사/학사	석사	박사	어학 연수생	기타 연수생
2012	86,878	▽4.81	60,589 (69.7)	40,551 (46.7)	15,399 (17.7)	4,639 (5.3)	16,639 (19.2)	9,650 (11.1)
2011	89,537	△6.09	63,653 (71.1)	44,641 (49.9)	14,516 (16.2)	4,496 (5.0)	18,424 (20.6)	7,460 (8.3)
2010	83,768	△18.60	60,000 (71.6)	43,709 (52.2)	12,480 (14.9)	3,811 (4.5)	17,064 (20.4)	6,704 (8.0)
2009	76,082	△24.65	50,591 (66.5)	36,525 (48.0)	10,697 (14.1)	3,369 (4.4)	20,335 (26.7)	5,156 (6.8)
2008	63,928	△26.61	40,585 (63.5)	28,197 (44.1)	9,143 (14.3)	3,245 (5.1)	19,521 (30.5)	3,822 (6.0)
2007	49,270	△41.69	32,056 (65.1)	22,171 (45.0)	7,247 (14.7)	2,638 (5.4)	14,184 (28.8)	3,030 (6.1)
2006	32,524	—	22,624 (69.6)	15,268 (46.9)	5,183 (15.9)	2,173 (6.7)	7,938 (24.4)	1,962 (6.0)

- * 주 1) 외국인유학생 비율() = 해당 과정 유학생수 /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 100
- 2)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에는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됨.
- ※ 국제통계에서는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본통계와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 및 유학생 비율이 다르게 나타남.(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제외).
- * 출처: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9. 11)

3) 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

- 2006년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6대 영역에 대한 세부과제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제화의 흐름에 맞는 대학의 환경과 여건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어옴.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교수 비율을 2006년 3.67%에서 2010년에는 5%로 늘리고, 대학의 외국어 전용 강좌비율을 2006년 2.19% 수준에서 2010년에는 3.1%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가) 외국인 교수 채용

- 2005년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전임 교원수는 2,131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대비 3.2%를 차지 하였음. 2005년 매년 0.5% 정도 비율이 증가하여 왔으며, 2012년 외국인 전임교원은 5,964명으로 전체 전임교원의 7.0%를 차지하였다.
- 대학 유형별로는 일반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원수가 전문대학의 전임교원수보다 많음. 일반대학의 전임 교원수는 2005년 1,671명에서 2012년 5,126명으로 약 3,500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전임교원 대비 비율은 3.3%에서 7.5%로 약 4% 증가함.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 2005년 320명에서 2012년 740명으로 약 500명 정도 증가하였고, 전임교원대비 비율도 2.7%에서 5.7%로 일반대학보다 외국인 교원의 비율이 적다.
- 대학은 외국인 전임 교원을 강의환경 개선 차원에서 외국어 전용 강좌 운영을 위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외국인 교원의 약 70%가 인문사회 계열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바, 이는 주로 어학 관련 강좌를 위해 외국인을 채용하는데 기인(이경숙, 2007)한다.

<표 II-10> 국내 외국인 교원 수

(단위: 명, %)

연도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전문대학		
	외국인 전임 교원	전임 교원	비율	외국인 전임 교원	전임 교원	비율	외국인 전임 교원	전임 교원	비율
2012	5,964	84,910	7	5,126	68,034	7.5	740	13,078	5.7
2011	5,462	82,190	6.6	4,534	63,905	7.1	741	12,891	5.7
2010	4,957	77,697	6.4	4,084	61,020	6.7	708	12,530	5.7
2009	4,127	75,469	5.5	3,319	58,848	5.6	696	12,451	5.6
2008	3,433	73,072	4.7	2,666	56,803	4.7	598	12,100	4.9
2007	2,919	70,957	4.1	2,319	55,117	4.2	456	11,685	3.9
2006	2,540	69,201	3.7	2,025	53,388	3.8	386	11,857	3.3
2005	2,131	66,862	3.2	1,671	50,432	3.3	320	12,027	2.7

* 주 1)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 (외국인 전임교원 수/전임교원 수) * 100

2) 전임교원 수는 총(학)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됨

3) 일반대학 교원 수는 학부와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이 포함됨

* 출처 :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9. 11)

나) 영어 전용 강좌 실시

○ 영어 전용 강좌는 3가지 배경으로 확대되어 옴. 먼저, 대학의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교수의 증가로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좌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따라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의 증가하게 됨. 마지막으로 2006년 6대 영역 국가차원의 정책 추진 이후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관련지표들과 함께 대학의 국제화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영어 전용 강좌 수도 증가하였다.

-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영어전용 강의,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한국어교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에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총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영어전용 강의 지원 대상 학교는 연세대, 계명대, 한남대, 영남대, 경성대, 한림대 등 6곳이었으며,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총 10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대학의 영어 전용 강좌 증가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 2011년 1학기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12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영어강좌수 및 그 비율에서 교육과정상 필수강좌의 경우 127개 대학 평균 11.6%(73,967개 강좌중 8,583개 강좌), 선택과목의 경우 5.8%(128,810개 강좌중 7,463개 강좌)를 각각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체적으로는 평균 7.9%를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11> 국내 대학들의 영어강좌 비율

구분	전체강좌수	영어강좌수	영어강좌 비율(%)
필수	73,967	8,583	11.6
선택	128,810	7,463	5.8
합계	202,963	16,040	7.9

** 주: 조사대상은 국공립 38개 대학, 사립대 89개 등 총 127개 대학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1(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84)

- 대학평가의 국제화 지표에서 비중을 두는 것이 영어강의임. 국내 대학들은 영어 강좌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인 계획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최근 국내 대학 내 영어강좌가 크게 증가해 왔으며, 특별히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에서 영어강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 대학별 영어강좌 비율을 살펴본 결과, 영어강좌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영어강좌는 증가한 추세로 나타남. 2010년 당시 조사 대상 대학 중 약 평균 15% 이상

실시율을 보이는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주대 약 17%, 연세대(서울) 약 28%, 이화여대 약 30%, 경희대 약 38%, 한동대 약 40%, POSTECH 약 49%, KAIST 50%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2012년에는 2010년과 비교하여 30% 이상 실시율을 보이는 대학의 사례가 증가하였음. 고려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POSTECH, KAIST 등 16개 대학들이 전체 강좌 중 영어강의를 30%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영어강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사립대학들이었으며,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들 중에는 영어강의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 조사내용은 영어로 진행하더라도 강좌 운영시간 일부를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어강좌 비율을 파악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다만 부분적으로라도 대학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비율을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수치보다는 높게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12> 국내 대학들의 전공수업 영어강좌 비율 순위

2012년			2010년		
순위	대학명	비율	순위	대학명	비율
1	고려대(안암)	30.00%	1	KAIST	50.00%
1	한국외대	30.00%	2	POSTECH	49.22%
1	이화여대	30.00%	3	한동대	40.30
1	한양대	30.00%	4	경희대	38.02
1	연세대(서울)	30.00%	5	한국외대	36.34
1	경희대	30.00%	6	성균관대	35.18
1	KAIST	30.00%	7	고려대(안암)	30.85
1	중앙대	30.00%	8	동국대(서울)	30.28
1	성균관대	30.00%	9	이화여대	30.23
1	한동대	30.00%	10	건국대	28.67
1	광운대	30.00%	11	연세대(서울)	28.54
1	건국대	30.00%	12	고려대(세종)	23.27
1	아주대	30.00%	13	한양대	20.65
1	POSTECH	30.00%	14	중앙대	19.82
1	한신대	30.00%	15	명지대	18.25
1	동국대(서울)	30.00%	16	인하대	18.19
17	서강대	25.92%	17	서강대	17.83
18	중앙대(안성)	25.09%	18	동국대(경주)	17.59
19	동국대(경주)	23.40%	19	아주대	17.56
20	고려대(세종)	21.88%	20	인제대	13.74

* 주. 영어강좌 비율=(전공과목 강좌 중 영어강좌 수/ 전공과목 강좌 수 총계)*100

*출처: 2012년, 2010년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

4) 국제화 프로그램 현황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리더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화에 맞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인턴쉽, 장학프로그램, 교환학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원 재정액의 최소 약 6%에서 최고 40%를

글로벌 관련 역량강화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 대학들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하여 8개의 사례대학을 선별하여 살펴봄.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 제도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재학 중 자비유학 프로그램, 계절학기 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 인턴쉽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과 자매협정을 맺은 학교로 학생들을 파견하여 최대 1년까지 자매대학에서 수학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으로써 학점인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대학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화 프로그램 중 활성화된 프로그램임. 재학 중 자비유학 프로그램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주며, 자비로 4년제 대학에 1년 동안 유학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 교환학생이나 자비유학과 같은 장기적인 교류 프로그램 이외에도 계절학과 연수프로그램은 방학을 이용하여 단기간 협정대학에서 관련 연수와 수학을 할 수 있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각 학교에 따라 인정되는 이수학점에 차이가 있음. 특히,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인턴쉽의 경우 국내외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기관과 협약하여 학생들이 무급으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I-13> 학생교류 유형 (8개교 사례)

	교환학생	재학중 자비유학	계절학기	연수	인턴쉽	기타
경희대학교	-대상:자매협정교 -기간:최대 1년 -등록금:본교 납부 -이수학점:1학	-대상:4년제 대학 -기간:최대 1년 -등록금:유학 대상교에 납부	-대상:자매협정교 -수업료: 유학 대상교에 납부 -이수학점: 6학점	-프로그램: 전공 연수·어학 연수·체육 연수·문화 연수·인턴연수 -기간: 방학 2개월 미만		

	교환학생	재학중 자비유학	계절학기	연수	인턴쉽	기타
	기 19~21학점			-이수학점: 연수에 따라 학점인정		
고려대학교	-대상:자매협정교 -기간:1년 -등록금:본교 납부 -이수학점: 1학기19학점	-대상:4년제 대학 -기간:1년 -등록금:본교, 유학대상교에 납부 -이수학점: 1학기19학점	-계절학기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대상:자매협정교 -수업료:본교에 납부 -이수학점: 3학점	-각 단대별로 해외 현장체험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일부 프로그램 학점인정	
서울대학교	-대상:자매협정교 -기간:1년 -등록금:본교 납부 -이수학점: 1학기 6학점 이상	-기간:1~2학기 -등록금: 외국대학에 수강료 납부	-대상:자매협정교 -이수학점: 9학점	-방문수학·어학연수를 지원하는 단기 지원사업 운영 -대학원생 대상 장기지원사업	-Global Talent Program(GTP)을 두어 인턴쉽운영	Harvard-Yenching Program -대상: 박사과정 지망생, 박사과정 학생 및 42세 이하의 재직교수 -기간:11~42개월 -연구비지원
연세대학교	-대상:자매협정교 -기간:최대 1년 -등록금:본교 납부 -이수학점: 1학기 15학점, 2학기 최대32학점	-대상:4년제 종합대학 -등록금: 유학대상교에 납부/본교와 유학대상교 모두 -이수학점:이수학기과 학점인정	-대상:자매협정교 -수업료: 유학대상교에 납부 -이수학점: 7학점	-대상: 4년제 종합대학을 원칙으로 함. -수업료: 유학대상교에 납부 -이수학점: 3학점	※IP(Global Internship Program) -기간:16주(정규), 160시간(계절) -이수학점: 12학점 인정	
이화여자대학교	-대상:자매협정교 -기간: 1년 -등록금:본교 납부 -이수학점: 1학기18학점	-대상:4년제 대학 -기간:1년 -등록금: 본교,대상교 모두 납부 -이수학점: 1학기18학점	-대상:자매협정교 -기간: 6주 -이수학점:재학생6학점, 휴학생3학점			
전주대	-대상:자매협정교 -기간: 1년			※어학연수 -대상:자매협정교 및 기관		※현장실습 -대상:미국, 일본, 중국의 해

	교환학생	재학중 자비유학	계절학기	연수	인턴쉽	기타
학 교	-등록금:본교 납부 -학점인정			-기간:하계방 학 3~4주 -이수학점: 2~3학점		외 기관 -기간:14주 -비용: 장학금 지급 -이수학점:1학 기 18학점
계 명 대 학 교	-대상:자매협 정교 -기간:1년 -등록금:본교 납부 -이수학점: 1 학기 15~20학 점			※어학연수 -대상: 영어권 자매대학 -기간:4주~6주 -이수학점: 계 절학기 3학점	※주한미군부 대인턴십 -행정부서 무 급인턴 근무 15학점 전공 인정	
부 경 대 학 교	-대상:자매협 정교 -기간: 1년 -등록금: 본교 납부 -학점인정		※ 국제화현 장경험 프로 그램 - 대상: 국제 화 프로그램 비참여 학생 대상 - 기간: 동계 방학 4주 -내용: 해외 협력대학 비 정규 프로그램 에 파견 -등록금: 총 경비의 약 80% 지원	※ 단기연수 -대상:자매협 정교 부속 어 학시설 -기간: 1년 -이수학점:3학 점인정 ※해 외 연 수 • 교환패키지프 로그램 -내용:어학연 수와 대학정 규과정 혼합 프로그램 -학점인정 가능	※부산시 부 경대 해외인 턴 -기간: 3개월 -이수학점:10 학점 이수가 능	※ 해외자원 봉사단 -기간:1년간 - 이수학점: 인 턴쉽3학점 ※ I - Proud Program -1~4학년까지 3단계를 통한 국제화 프로 그램

* 출처: 각 대학교 홈페이지

- 해외 연수 및 교환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몇 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
학 중 가장 참여율이 높은 대학은 경희대로 전체학생의 6.7%의 학생들이 연수
및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상위 20개 대학 중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

인 서강대의 경우 전체 학생의 1.8%가 프로그램에 참여함. 상위 20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 대학의 90%가 넘는 대다수 대학들의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4> 해외 연수 및 교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

순위	대학명	비율	순위	대학명	비율
1	경희대	6.71%	11	선문대	3.27%
2	한국외대	6.22%	12	중앙대(안성)	3.14%
3	중앙대	5.09%	13	영남대	2.51%
4	숙명여대	4.24%	14	고려대(안암)	2.40%
5	한양대	4.23%	15	전북대	2.31%
6	동국대(서울)	4.02%	16	서울여대	2.18%
7	성균관대	3.51%	17	부산외대	2.13%
8	서울시립대	3.51%	18	이화여대/연세대(서울)	2.12%
9	카이스트	3.36%	19	아주대	2.01%
10	이화여대	3.33%	20	서강대	1.85%

*출처: 2012년, 2010년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

- 이외에도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 관련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실질적인 영어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이후 취업을 위한 글로벌 특강이나 해외현장 탐방 프로그램 등이 있다.
- 그러나 국제화 프로그램도 대학의 소재지나 설립유형에 차이가 있음. 교환학생의 경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해외 자매 대학에 보내고 있음.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서는 수도권의 대학보다 비수도권의 자매결연 대학수가 더 많다.

<표 II-15> 글로벌인재 선발 제도 및 양성 프로그램

	내용
고려대학교	※ KUSEP(Korea University Spoken English Proficiency) 프로그램 - 신뢰성 있는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말하기능력 측정을 통해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지원 - KUSEP 프로그램은 말하기 능력 측정 등을 포괄하는 모듈로 개발하여 운영 예정
연세대학교	※신입생영어진단평가 - 영어인증제 실시를 이해 정확한 영어능력 측정 개발 프로그램 보안 ※Global Leadershin Program - 저소득층 우수학생 위한 해외 대학 프로그램 파견 지원 ※사회과학 글로벌 진로교육 - 특강 및 문제해결 연구 수행 ※주거 현장학습 프로그램 - 해외 선진기관 현장체험 ※Global Leadershin Program - 연간 2회 선발, 1개 학기에 해당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용 지원
전주대학교	※해외탐방 프로그램 - 다양한 해외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제화 마인드 및 최신 전문지식을 습득, 학습 성취동기 고양,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프로그램 - 탐방형태: 팀별탐방(주제단위 3~4명의 팀), 해외봉사활동(개인별) - 탐방기간: 해외봉사(20일이상), 팀별 탐방(10일 이상)
계명대학교	- 전인적지도자 양성을 위한 국외연수 - 공인 어학시험 대비 교육 지원(응시료지원) - 단기집중 영어캠프(학기 중 2주~10주 과정, 독일어/영어/러시아어) - 교환학생 및 국외어학연수 지원 - 교양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발표대회 - 으로 독일어, 영어, 러시아어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경대학교	※ 우수 신입생 국제화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우수 신입생 18명(수시모집 전체 및 단과대학 수석 및 차석-14명, 부경글로벌인재 특별전형 계열 수석 및 차석-4명) ※ 교내집중연수 - 합숙을 통한 외국어 집중훈련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별 반편성 및 담임강사를 통한 개별 지도 강화 - 1학년 여름방학 기간 중 4주

* 주. 글로벌인재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부합한 프로그램만 선별하여 기재함

* 출처: 각 학교 홈페이지

- 특히, 정부는 2008년부터 대학생들의 취업 무대를 국내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해외인턴 3만명 등)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여 옴. 정부지원 인턴십 사업은 11년부터 6개 부처에서 개별 운영되던 10개 사업을 교과부가 총괄·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하기 위해 연 400명을 선발하여 파견 중임. 선발 대상은 대학 재학생으로서 4학기(전문대학의 경우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대학졸업 후 1년 미만 경과자이며, TOEIC 750점 이상, TOEIC 스피킹 5등급 이상이며 학점 3.375점(4.5점 만점인 경우) 이상인 자로 제한을 두고 있다.
- 정부의 인턴십 사업 구성은 5개월 어학연수, 12개월 인턴, 1개월 여행으로 구성되어 최장 18개월의 프로그램임. 선발자들에게는 왕복 항공료(2,100천원)와 무급 인턴 시 최대 6개월간 체재비(\$750/월)의 일부를 지원한다.
- 대학 자체내에서 파견하는 인턴파견 인원은 교육과학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학 231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2010년 기준 4,081명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 개별 대학의 인턴십 프로그램과의 차별을 위해 정부지원 인턴십 프로그램은 소득 분위별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 2013년 4월 기준 대학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현황에 따르면, 각 전공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인턴프로그램을 분류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900억 규모의 재정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다.

<표 II-16> 대학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 4월 현재		
	지원액	목표인원	파견인원	지원액	목표인원	파견인원	지원액	목표인원	선발인원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1,300	300	373	1,206	250	233	560	200	73
전문대생 글로벌 현장학습	5,000	500	589	4,621	600	612	2,070.5	560	348
WEST	5,000	340	378	4,819	400	373	2,549.9	500	370
예비교사 해외진출	500	24	28	407	20	20	0	20	0
무역해외인턴	1,112	150	153	908	120	123	889	270	63
플랜트해외인턴	1,772	400	400	1,157	250	280	694.5	300	75
전시회해외인턴	1,116	300	302	758	150	156	505	200	105
해외한인기업인턴				535	100	102	383.5	150	86
유럽글로벌기업인턴				491	100	89			
외식기업 청년인턴	1,600	200	144	950	120	110	196	50	50
해외관광인턴	700	100	95	700	100	104	175	50	13
국제전문여성인력 양성	400	30	29	400	30	32	200	30	45
물류인력 해외인턴				432	60	60	216	60	23
중소기업 해외인턴	2,100	200	186	2,084	200	237	966	230	86
해외농업인턴	200	30	29	200	30	30			
해외농업연구인턴				200	20	17			
합계	20,800	2,574	2,706	19,868	2,550	2,578	9,405.4	2,620	1,337

*출처: 교과부 내부 자료(2013)

3.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과 프로그램 성과

가. 고등교육 국제화의 양적 성장

- 대학과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인 국제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정과 정책지원, 대학 평가 지표로 국제화 정도를 설정함으로써 국제화에 적극 대처해 옴. 그로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 달성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의 정량적 차원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 낸 것은 괄목할 만하다.
- 국제화 분야 중 전체적으로 대학들은 국제교류, 외국인 학생유치, 재학생의 국제화를 위한 영어전용 강의 확대 순으로 중점을 두고 국제화를 추진해 왔음.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유치는 초기 목표를 3년만에 달성할 정도로 성과가 높았음. 일반대학들은 이밖에도 재학생의 국제화와 교육과정의 국제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음. 즉, 단기적으로 학생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많게는 465개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국제화를 추진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 그러나 양적 성장 이면에는 대학의 설립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국제화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수도권의 사립대학이나, 국가의 재정지원이 있는 학교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주도해 가고 있음. 그러나 전혀 자매 결연을 맺지 못한 학교도 있으며, 대학평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는 영어 전용 강좌나 외국인 교원 채용 등에서도 그 비율이 매우 저조한 학교가 대다수이다.

나. 글로벌 노동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필요

1) 취업성과 미비

- 고등교육기관들의 국제화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정부의 역량 강화사업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정책 추진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음. 각 대학은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글로벌 리더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중요 사업으로 계획하여, 핵심 지표로 설정하여 추진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상당한 재정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투자되고 있다.
-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교수 채용, 외국인 학생 유치, 재학생의 국제화를 위해 타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영어강좌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나아가 국제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국제학부를 신설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러나 전국 558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11.8월 및 '12.2월 졸업자 566,374명)를 대상으로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해외 취업 비율은 2012년 0.45%에 불과함. 2011년도 해외취업비율 0.27%와 비교하면 0.18% 증가함 수치이다.
- 이 결과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보여왔으나, 단기간의 연수사업, 해외교류 등 국제화의 성과 차원에서 질적인 측면으로는 보았을 때는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음. 정부의 글로벌 리더 양성에 대한 정책적 취지와 지원, 이로 인한 각 대학의 재정적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편성을 생각해 볼 때 전체 취업률과 비교하여 매우 저조한 성과이다.
- 영어강의 활성화 및 외국인 교수채용, 외국인 유학생 수 등 각 대학이나 정부가 전공별 목표 설정, 인센티브 등 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화를 추진한 결과임. 즉, 근본적인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다.

<표 II-17>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개황

(단위: 교, 명, %)

구분	2011년						2012년					
	학교수	졸업자	전체취업자계	해외취업자	해외취업비율	취업률	학교수	졸업자	전체취업자계	해외취업자	해외취업비율	취업률
총계	557	559,000	284,516	754	0.27	58.6	558	566,374	296,651	1,324	0.45	59.5
전문대학	151	188,216	104,116	317	0.30	60.7	150	189,733	106,139	530	0.50	60.8
교육대학	11	5,574	2,988	—	—	55.1	11	5,225	3,280	—	—	64.7
대학교	186	293,967	135,157	374	0.28	54.5	185	298,883	144,836	696	0.48	56.2
산업대학	17	21,339	12,630	26	0.21	65.3	17	20,781	12,312	51	0.41	65.3
각종학교	6	860	221	—	—	37.3	5	873	187	—	—	28.0
기능대학	26	6,329	4,967	7	0.14	85.5	24	6,370	4,901	4	0.08	82.2
일반대학원	160	42,715	24,437	30	0.12	72.1	166	44,509	24,996	43	0.17	69.7

* 주: 취업자는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를 포함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2012)

2) 획일화된 영어강의 확대

- 이와 같은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량적 결과에만 초점을 두어 학생의 수준이나 학교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함. 그 결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통해 교육과정 이후 글로벌 노동시장으로 취업 연계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실제로 국제화 지표의 중요성과 외국학생 유치의 필요성에 따라 영어강의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교과목에서도 일률적으로 영어강의를 실시하는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함. 예컨대, 국어국문학과나 중국학과 등에서 영어강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대학에서는 영어강의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축적됨. 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영어강의 확대에 관한 정책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또는 학과의 교육 목적이나 인재상, 교수자와 학생 수준에 대한 고려보다는 외국인 학생 유치, 학교 평판도 제고 등 대학 존만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영어강의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 아울러 단편적인 영어강좌수 확대만이 아니라 대학 국제화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과 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 국제화와 관련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1) 전체 강좌 중에 외국어 전용강좌 비율은 물론, 2)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비율과 3) 국제관계, 외국문화 등 국제적인 주제와 관련된 국제화 관련 강좌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안(2008)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대학영어강의 정책포럼, 2011: 89).

3)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않은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

- 현재의 국제화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 훈련형 연수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인턴십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이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획일화된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역량 강화로 연계되지 않고, 일회적인 프로그램 참가 경험 쌓기의 한계를 갖기 쉬우다.

- 영어권 국가 위주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역량을 양의 효과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음. 글로벌 미래인재는 특정 국가가 아닌 다양한 국가와 문화속에서 노동하는 인재임. 그러나 대부분 대학들의 국제화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국가나 기관은 영어권의 특정 국가로 편포되어 있어, 글로벌 시장보다는 특정 국가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가능성이 있다.
- 현재의 각 프로그램 참여자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어학능력 등 우수한 학생이 선발될 가능성이 크며,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취업기회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단기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해서 단순한 참여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해외기업에서의 경험이 해외취업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
-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중 어학능력을 구비한 인력을 선발하여 취업알선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연수 사업 중도하차 학생이 매년 1,000명 저도로 연수대상 모집 선발비, 진행비 등 각종 예산 소요되고 있음.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중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 있다.
- WEST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 연수와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어학연수의 경우 만족도가 비교적 높지만 같은 클래스에 한국 학생의 비율이 50%로 너무 높은 점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임. 커리큘럼이 인턴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WEST 참여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임천순, 2010).
- 인턴쉽 프로그램의 경우, 유급을 전제로 1년 동안 수행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의 기업 문화는 인턴쉽은 무급이며,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짧게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 학생들이 미국기업에서 인턴직을 구하기에 한계가 있음. 학생

들이 자신의 전공과 선호를 반영한 인턴쉽과 미국이나 글로벌 직무 환경을 갖춘 기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임천순, 2010).

- 그러므로 연수취업사업이나 인턴쉽 등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 종료 후 현지 정규직 취업을 위한 사후 관리의 강화, 취업 후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또한 연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연수 가능 기관을 좀 더 많이 확보할 필요 있음. 또한 인턴쉽 체험과 어학연수를 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각 대학과 정부가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 체제 부족

- 그동안 정부와 대학은 정부의 정책과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의 재원마련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확대 문제에 치중해 왔음.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 학생으로 특정국가나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노력 부족과 관리 역량이 미비하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 주요 대학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대규모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각 대학의 부속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이나 방학을 이용한 국제 하계 강좌, 글로벌 라운지, 외국인 도우미 제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의 언어적 어려움을 위한 지원, 상담서비스, 행정적인 지원, 문화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또한 사소하게는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을 1 대 1로 연결하여 외국인 학생 공향 마중, 수강신청, 휴대폰 및 통장 개설, 생활용품 쇼핑이나 지역관광 등 외국인유학생들의 일상 문제들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대학교육의 국제화는 개인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학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노력과 달리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다양한 유학생지도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지원이나 기숙사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 외국인 유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의 수용률을 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총 86,878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 수는 32,600명으로 수용률이 전체의 37.5%로 여전히 저조한 형편이며, 이는 생활비 지출부담 등으로 한국 유학의 선호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표 II-18>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

('12. 4. 1. 기준)

시·도	외국인 유학생 수			수용률(%)
	수용	미수용	계	
서울	9,283	28,086	37,369	24.8
부산	2,802	3,181	5,983	46.8
대구	901	1,947	2,848	31.6
인천	525	1,360	1,885	27.9
광주	1,491	1,437	2,928	50.9
대전	2,568	2,594	5,162	49.7
울산	390	239	629	62.0
경기	3,619	3,881	7,500	48.3
강원	1,009	965	1,974	51.1
충북	1,224	1,523	2,747	44.6
충남	2,994	2,737	5,731	52.2
전북	1,277	2,128	3,405	37.5
전남	1,041	523	1,564	66.6
경북	1,821	2,618	4,439	41.0
경남	1,148	628	1,776	64.6
제주	507	431	938	54.1
계	32,600	54,278	86,878	37.5

* 주 1) 외국인 유학생 수에는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이 포함됨

2)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대학원이 포함됨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12)

- 장기적으로 외국의 우수한 유학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시설이나 우수한 교육환경 구현 등으로 교육인프라와 유학생 지원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어강좌의 확대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희망대학에 한국어학당 설치의무의 부과 등을 통하여 아시아지역에 편중된 유학생 분포를 다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유학생 전담조직 부족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미흡, 국내생활 및 수학 편의 증진에 필요한 복지 혜택의 부족, 제한적인 사증발급으로 인한 취업곤란 등은 외국인 유학생의 6.3%, 외국인 어학연수생 26.4%('10, 법무부)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 또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국내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대학과 기업 간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체제 미비로 졸업과 취업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졸업 후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III. 영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 분석

- 이 장에서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정책들을 통해 영국의 인재양성 방향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최근 영국의 고등교육 정책 트렌드 분석을 통해 영국의 글로벌 인재양성 모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영국 정부의 대학 및 대학원 정책

- 영국은 국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에게 우수한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각 학문 분야에서 선두적인 연구업적을 생산하는 대학과 연구센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표 III-1> 2010/11, 2011/12 출신국가별 학생 수와 변화비율

출신 국가	2010/11	2011/12	% change
UK	2073070	2061410	-0.6%
Non-UK (영국 이외)	428225	435235	1.6%
Other EU (EU 내 지역)	130120	132550	1.9%
Non-EU (EU 외 지역)	298110	302680	1.5%
Total	2501295	2496645	-0.2%

출처: HESA Student Record 2010/11, 2011/12

- <표 III-1>은 최근 영국 대학생들의 출신국가를 보여준다. 2011/12 학년도에 영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2,496,645 명으로 전년도의 2,501,295 명에 비해 0.2 % 정도 다소 감소하였다. 이들 학생 중에서 영국 학생은 2,061,410 명으로 전체학생의 82.6%이며 전년도에 비해 0.6 % 감소하였고 반면에 유학생은 435,235 명으로 5.3%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1.6% 증가하였다.

<표 III-2> 영국(UK) 유학생들 출신국가(EU 외 지역) top 10

출신 국가	2010/11	2011/12	% change
China	67,325	78,715	16.9%
India	39,090	29,900	-23.5%
Nigeria	17,585	17,620	0.2%
United States	15,555	16,335	5.0%
Malaysia	13900	14545	4.6%
Hong Kong	10440	11335	8.6%
Saudi Arabia	10270	9860	-4.0%
Pakistan	10185	8820	-13.4%
Thailand	5945	6235	4.9%
Canada	5905	6115	3.5%
All other non-EU countries	101915	103205	1.3%
Total non-EU domicile	298110	302680	1.5%

출처: HESA Student Record 2010/11, 2011/12

- 이 들 유학생 중 EU 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전년도 보다 비교적 더 많은 1.9%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들 학생을 출신국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III-2>와 같이 중국출신 유학생이 가장 많고 그 뒤로 인도, 나이지리아, 미국 순으로 이어진다. 흥미롭게도 영국으로 오는 중국 유학생들은 2010/11 학년과 비교해 16.9 %가 증가하는 등 최근 크게 늘고 있는데 인도 유학생이 같은 기간 오히려 23. 5%가 줄어 매우 대조적이다.
-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출신국가를 비교해 보면 <표 III-3>과 같다. 풀타임 대학원생만 비교해 볼 때 영국 학생은 132,785 명으로 유학생 176,640 명보다 오히려 적다. 대부분의 영국학생들은 풀타임보다 파트타임으로 많이 등록하여 226,010명이나 된다.

<표 III-3> 2011/12 학년 출신국가별 학부, 대학원과정 학생 수

	대학원 Postgraduate		학부 Undergraduate		
출신 국가	Full-time	Part-time	Full-time	Part-time	All students
UK	132,785	226,010	1,212,025	490,590	2,061,410
Non-UK	176,640	33,070	199,950	25,575	435,235
Other EU	37,090	12,375	73,660	9430	132,550
Non-EU	139,550	20,695	126,295	16145	302,680
Total	309,425	259,080	1,411,975	516,165	2,496,645

출처: HESA Student Record 2011/12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 모인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대학들에 대한 영국정부의 주요정책들을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가. 영국 고등교육정책 개관

- 영국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지속적 유지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영국 정부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고등교육제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초기의 고등교육 정책은 ① 전통적으로 독립적이던 대학들에 좀 더 많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② 변화하는 산업발전에 부응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를 키우기 위해 새로운 대학과 기술대학들의 설립을 통해 고등교육 성장을 이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능력이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제도를 (1963 Robbins Report).
- 1980년대 이후에는 양적으로 성장한 고등교육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는 대학들의 평가제도(performance indicators)를 도입해 교육과 연구의 질을 평가하

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고등교육 정책을 도입하였다 (DES, 1985). 1992년 고등교육 개혁을 통해 고등교육제도를 일원화 한 이후에는 정부는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등교육 운영 하면서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도모하였다(1992 Higher and Further Education Reform).

- 현재의 고등교육정책은 1997년 데어링보고서 발표 이후 고등교육이 지식기반사회의 등장과 평생학습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는 특히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생산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The Dearing Report: Higher Education in the Learning Society, 1997).

나. 영국 고등교육정책과 인재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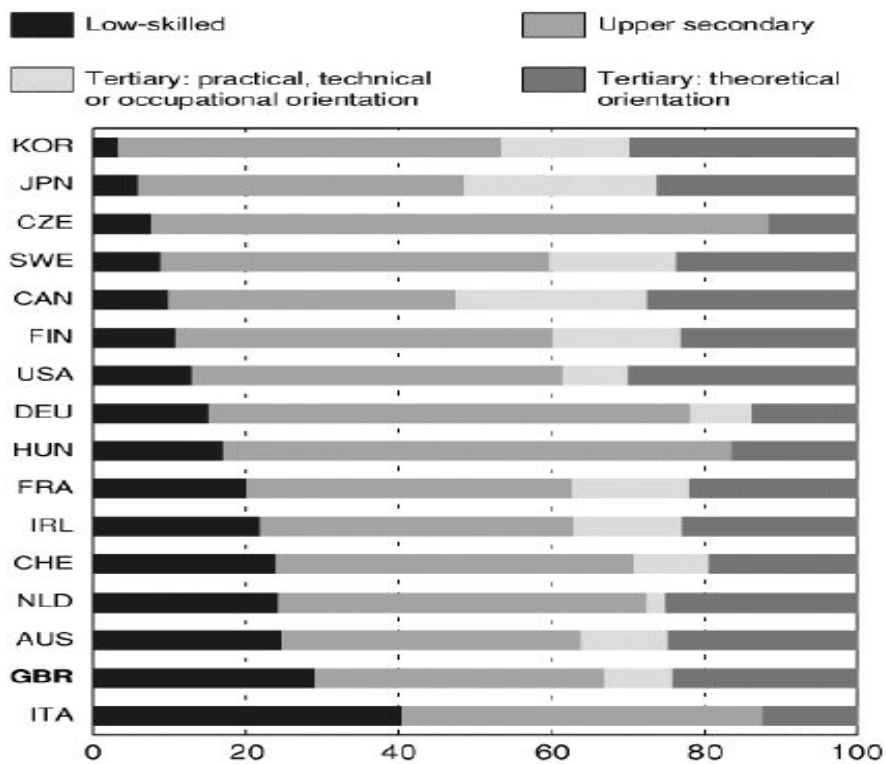
- 영국정부는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경쟁 속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① 첫째는 우수한 영국의 고등교육의 혜택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 ② 고등교육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성장 환경을 만드는 것, ③ 지식기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양성에 필요한 전략적 지원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고등교육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1) 고등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인재양성

- 고등교육 참여확대 정책의 두 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는 첫째는 전통적으로 고등교육 참여가 저조한 사회그룹 특히 저소득 층 자녀들의 고등교육 진학을 지원하는 것과 둘째는 고등교육의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교육 투자의 경제적 효

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Widening Participatio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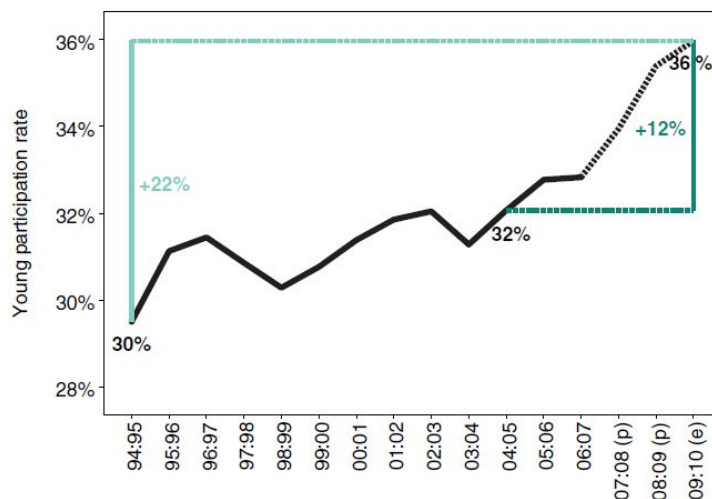
- 영국 정부는 고등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첫째 경제적으로 국가 성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고등교육의 참여 저조는 국가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경쟁국과 비교할 때 저조한 국가 생산성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참여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 했던 사회그룹 출신의 학생들이 고등교육 참여하도록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림 III-1] 상위 20%와 하위 20% 고등교육 참여 비교,
영국의 고등교육 참여 팽창 표

자료: Clark, T. (2006), *OECD Country Report: UK*, OECD, p. 6.

- 하지만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고등교육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음 [그림 III-1]에서 보듯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아직도 사회 계층에 따른 고등교육 참여 정도에 큰 차이가 있어 영국에서는 아직도 고등교육의 기회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 따라서 영국 정부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영국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 아직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림 III-2]에서 보듯이 고등교육 참여는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영국 정부의 고등교육 참여확대 정책은 결국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함께 개인에게는 교육투자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III-2] 영국 고등교육 참여 동향

출처: HEFCE, (2010), *Issue Paper: Trends in Young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core results for England*, p. 4.

2) 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제도

-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정부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개인,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등교육 재정제도를 도입 발전시켜 왔다.
- 영국정부는 고등교육 참여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1980년대의 고등교육재정 삭감 정책이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성공적이지 못하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고등교육의 질은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시장원리에 기초한 평가와 차별적 재정지원 등이 도입되었지만 결국 학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학비정책은 고등교육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정부, 산업체와 함께 고등교육에 드는 비용을 다소나마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 한다. 2003-2004학년도에 처음으로 천 파운드의 학비 상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6-2007 학년도부터는 삼천 파운드로 인상되었다가 2012-13학년도부터는 다시 전면적인 학비제도가 도입되었다. (Higher Education Act, 2003)
- 전면적인 학비제도는 2011년 6월 교육백서 "고등교육: 학생이 중심이 되는 제도" (Higher Education: Students at the Heart of the System)가 발표되면서 고등교육의 학생 부담 원칙에 따라 2012-13학년도부터 실시되었다. 학비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학생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하였다. (BIS, 2011White Paper)

- 학비제도의 도입으로 정부가 그동안 지원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부담이 결코 해소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대학에 합격한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금융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지출 항목만 바뀐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면적인 학비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그동안 지속 해온 고등교육 참여확대 정책과 더불어 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재정제도의 확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는 그동안 다소 약했던 학생금융지원이 체계화 되고 다양한 장학금 기회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고등교육 참여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곧 더 많은 인재 양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3) 과학 · 기술 육성정책과 인재양성

- 영국정부는 198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산업발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 내었고, 최근의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잘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혁신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해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지식경제 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지니스 R&D, 교육과 기술 함양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래야만 세계의 대학과 기업, 자본들이 영국의 대학, 기업들과 협력하여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기업들을 세우고 세계 경제를 이끄는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HEFCE, 2010)

○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확보 (Race to the Top)

따라서 정부는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 지역발전위(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s)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기술전략위(the Technology Strategy Board: TSB)가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혁신기술을 제공하는 기술분야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① 앞선 비즈니스와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며, ②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③ 새로 부상하는 기술산업을 육성하고, ④ 영국이 세계 선두기업들의 투자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전략적인 과학·기술 지원정책들을 계획하였다. (Lord Turville, 2007)

- 정부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STE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것에 반해 지난 20여 년 동안 STEM과목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자료에 따라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정부는 과학·기술 교육을 장려하고 관련분야의 진학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학습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성공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영국 고등교육 재정위원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목에 대한 연구 구역을 통해 매년 대학 졸업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또한 구체적으로 ①STEM과목의 교사들을 육성하고, ②고등학교에서 과학과목의 학습을 장려하고 진학지도를 강화하며, ③대학에서도 핵심과학 전공자들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Lord Turville, 2007)

① STEM과목의 교사들을 육성

- 영국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STEM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1990년대에 새로운 교과과정에 의해 학생들은 두 개의 과학과목을 필수로 공부하였고 이에 힘입어 과학계열 전공자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과학 특히 물리, 화학, 수학II와 같은 주요 과학 과목의 전공자는 실제로는 감소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14년 까지 모든 과학 교사의 25%를 물리전공, 31%를 화학 전공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 마다 각 과목에서 5명의 졸업생 중 1명은 교사로 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리, 화학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가의 재정 지원과 경력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을

통해 교사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② 고등학교에서 과학과목의 학습 장려와 진학지도 강화

- 교과과정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 과목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는 과학학습센터(Science Learning Centre)를 설립하여 교사, 학교, 정부, 산업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재정과 교사를 지원하고 과학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더불어 과학 전공자가 단지 과학과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금융, 미디어,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취업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③ 대학에서 핵심과학 전공자들도 육성

- 실제로 학부과정에서 과학과 엔지니어 전공자들의 수는 늘고 있으나 산업수요를 고려할 때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는 학부생들의 진로 경향과 최근 학부졸업생들의 진로선택, 임금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2004년부터 주요 과학 기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strategically important and vulnerable subject: SIVS)를 설정하게 되었고 이들 분야는 2012-13년 학비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 영국고등교육 정책의 특징

영국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 ① 정부의 첫째 관심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 기술, 고 지식 학

보를 위해 고등교육 참여 확대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제공하는 우수한 교육을 더 많은 영국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영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 ② 정부의 두 번째 관심은 양적으로 성장한 고등교육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효율적 운영이다. 정부재정에 의존해 온 고등교육 기관이 다른 국가들의 우수 대학들과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고등교육의 재정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학생들이 교육비 전액을 부담하게 하고 대신 정부의 재정지원은 좀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 ③ 정부의 세 번째 관심은 지식기반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 지원을 위해 STEM 분야에 전략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세계적으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대학들은 이미 세계 각 국에서 모여든 인재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대해 직접적인 정책관여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우수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제도적인 재정적 지원방안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 영국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특정 소수 그룹을 대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 정부의 관심은 영국대학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대학은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영국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2012-13년 학비제도 도입 이후 영국의 학생들이 학비부담으로 대학원진학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보고들이 발표 되면서 정부의 대학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현

황을 고려하여 우수한 영국학생들이 대학원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2. 영국 대학의 글로벌 인재양성 사례

가. 워릭 대학교 University of Warwick

1) 대학 소개 2)

- 워릭대학은 1964년 적은 수의 대학원 학생과 1965년 450 명의 학부생을 받아들 이면서 설립되었다. 50여 년이 지난 2007년에 7009명의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모 두 16,646 명의 학생들을 교육 시키는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전 세계 125개 국으 로 부터 모인 유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약 20%에 달하고 있다. 29개의 학과와 50 여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교육과 연구 성과가 우수한 영국에서 가 운영되고 있다. 2007년에 부임한 트리프트 (Professor Nigel Thrift) 총장은 2015 전략 (Strategy – Vision 2015)을 수립한 이후 변화하는 재정과 정치 상황에 맞는 발전 목표들을 제시하였다.

2) 대학 발전전략

- 2015 전략에 제시 된 대학의 새 5대 mission은 다음과 같다.³⁾

- 교육과 연구에서 선두 주자
- 연구 수월성을 통해 인류의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공헌
- 경제와 사회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2) <http://www2.warwick.ac.uk/about/history/> 203년 3월

3) <http://www2.warwick.ac.uk/about/profile/> 2013년 3월

- 지역의 학문, 문화, 경제적 발전에 기여
- 사회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재능 있는 모든 이에게 워릭의 교육 제공

○ Warwick은 2007년 2015 전략(Strategic – Vision 2015)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연구와 학문, 학생경험, 국제화, 대학관계자, 지속가능성의 5개 분야에서 대학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발전 목표를 소개하고 있다. (대학 발전전략 Strategy – Vision 2015)2015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구와 학문 research and scholarship 4)

워릭대학은 연구와 교육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하게 앞서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뛰어난 연구성과와 업적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헌신적인 연구자들을 계속 후원하고 신진학자들의 영입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i) 뛰어난 학자와 교직원의 발굴과 양성,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 ii) 박사후 연구원의 지속적 육성, iii) 간 학문 연구강화 방안의 일환인 "grand challenges" 재추진, iv) 대학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 확대 등의 네 가지 항목을 정하여 전략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표 III-4> 워릭대학의 연구·학문 (research and scholarship) 발전 방안

i 뛰어난 학자와 교직원의 발굴, 양성,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
<p>대학은 끈임없이 뛰어난 학자와 교직원들을 발굴, 양성, 지원하고 그들의 뛰어난 업적에 대한 보상을 통해 대학이 목표로 하는 "top 50 aim" 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워릭이 보유한 45명의 (45 highly cited academics) 학자들에게는 12개월의 추가 연구년을 제공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귀감이 되도록 한다. 대학은 한편 신진 연구자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대학 내 학문 발전연구소 (The Institute of Advanced Study)에 더 많은 박사후 과정 연구생들을 선발하고 육성하여 가장 성공적인 연구자들을 영입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다.</p>

4) http://www2.warwick.ac.uk/about/vision2015/research_and_scholarship/

ii 박사후 연구원의 지속적 육성
박사후 연구 학생들의 수를 2006/07년과 비교 2015 년 까지 두 배로 늘린다. 이를 위해 대학원 과정 학생들을 위한 혁신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한다.
iii 간 학문 연구강화 방안, "grand challenges" 재 추진
이미 대학의 특화 영역으로 인정받은 간 학문 연구 "grand challenges"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식량·환경 (Energy and Food Security)와 같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분야는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iv 대학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 확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론 대학의 뛰어난 연구업적을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 주요 관계자들과 정치 입안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해간다.

② 학생들의 교육 경험 student experience ⁵⁾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과 국가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학생들이 위릭에서 최고의 교육·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③ 국제화 방안 internationalisation ⁶⁾

위릭은 모범적인 국제화대학이 되기 위해 대학 내 모든 영역에서 국제화 노력을 기울이는데 특히 위릭의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시각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i) 모든 학생의 국제화, ii) 다양한 배경의 유학생 선발, iii) 국제여름 학교 운영, iv) 교수·연구에서 국제협력 강화, v)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지역에서의 활동 증대 등의 다섯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5) http://www2.warwick.ac.uk/about/vision2015/student_experience

6) <http://www2.warwick.ac.uk/about/vision2015/internationalism>

<표 III-5> 워릭대학의 국제화 방안

i 모든 학생의 국제화
'모든 학생의 국제화'라는 목표아래 대학은 모든 학생들이 교과과정, 외국어 학습, 국제자원봉사, 국제 교환학습 등 다양한 경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세계주의적인 (cosmopolitan) 견해를 익히도록 한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해외경험이 중요하고 영국 학생들도 학업 후에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대학은 해외의 파트너 대학, 기업들과 협력하여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ii 다양한 배경의 유학생 선발
해외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유학생 선발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린다. 유능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2011-12학년도 부터는 총장장학금(The Chancellor's International Scholarships)도 시행한다.
iii 국제여름 학교 운영,
워릭 여름학교 프로그램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을 혁신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곳곳에 있는 뛰어난 학부생들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이들이 여름학교에있는 동안 워릭의 대학원 과정을 홍보한다.
iv 교수·연구에서 국제협력 강화
유럽과 세계 각 지역의 대학들 특히 워릭의 파트너대학들과의 교육·연구 협력을 지속한다. 북미의 모나쉬대학, 보스턴 대학, 인도의 IIT Kharagpur와 WMG 같은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Erasmus Mundus와 같은 재정 지원을 활용하여 공동 석·박사 과정도 확대해갈 것이다.
v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지역에서의 활동 증대
워릭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지역 에서의 고등교육과 연구,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와 관련된 이슈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교육 프로젝트 (Africa teaching project)를 통해 대학 내에서 아프리카의 문화, 경제, 사회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지역 이해는 세계의 다른 지역연구로도 발전시킬 것이다.

④ 대학 관계자 7)

대학의 명성을 국내와 해외에서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우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대학은 늘 다양한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벌려 대학의 명성을 높이고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공헌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i) 대학의 직원들이 모두 주인의식 ("employee ownership")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ii)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워릭 공동체의 일원으로 ("Lifetime Academy") 남

7) <http://www2.warwick.ac.uk/about/vision2015/stakeholders/>

아 언제나 대학의 시설, 교육프로그램 등의 각 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iii)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도 대학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iv) 지역의 비즈니스와의 협력을 (the Coventry and Warwickshire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을 강화해서 지역 비즈니스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한다. v) 마지막으로 대학이 있는 버밍햄지역, 워릭셔지역의 불우한 환경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IGGY membership) 교육에 헌신한다.

⑤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8)

우선 대학의 재정 환경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원을 개발하여 대학의 재정 독립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매 해 지속적 성장 보고서를 통해 대학이 환경, 경제, 사회에 면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학생과 직원이 함께 노력한다.

<표 III-6> 워릭대학의 지속적 발전 방안

i	국내·외 에서 전략적인 교육·연구 활동을 통해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재정 독립성을 확보한다.
ii	2011년 여름부터 시작 된 대학전략에 따라 대학의 지역활동을 늘리고 대학발전 기금모금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iii	지식이전과 대외 활동을 통해 재정 독립성을 확보한다. 특히 2011년 8월부터 총장이 주도하는 지식이전과 비즈니스 협력(Knowledge Transfer and Business Engagement) 는 지역과 국내·외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iv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매년 10%정도 높여 학생과 직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v	환경의 지속적 발전과 에너지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탄소가스 방출을 현재 수준의 반으로 줄인다

3) 학생 선발

8) <http://www2.warwick.ac.uk/about/vision2015/sustainability>

○ 학생 선발 규정

영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부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 선발 기관인 UCAS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 Services: UCAS)에 등록해 일련의 학부입학 절차를 따르게 된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워릭은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몰려 지원한 학생 9명 중 한명만 입학 할 정도로 경쟁이 높다. 따라서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는데 2010년의 경우 학부생의 81%가 AAB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선발 특징

하지만 워릭대학은 소외계층과 성인들에게도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6년부터 시작한 시간제 학위과정은 매우 인기가 있으며 1991년부터는 지역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혁신적인 2+2 학위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파운데이션(Foundation Degree)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교육기회를 부여하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4) 학사관리

○ 워릭 교육의 특징

워릭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과, 국가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학생들이 워릭에서 최고의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9)

워릭의 교육은 교수와 연구진이 학생들에게 흥미 진진한 학습을 제공하기위한 혁신적인 교육을 이끌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훈련 받은 워릭의 뛰어난 졸업생들이 워릭 교육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워릭 학생들은 최신 기자재와 현장실습이 첨가된

9) http://www2.warwick.ac.uk/about/vision2015/student_experience

2013년 3월

혁신적인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진 생동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최상의 교육을 통해 가장 높은 고용가능성을 갖게 된다.

- 위릭의 모든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독특한 교육 경험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대학은 위릭에서의 학습이 모든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이를 위해 대학은 학부생들에게는 혁신적인 학습법과 풍부하고 진보적인 교과과정, 미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현장학습 등으로 뛰어난 위릭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대학원생들에게는 교육과 연구의 결과가 학생들의 학습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한다.
 -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급변하는 세계에 도전하며 성공적으로 일하는 위릭의 졸업생들이 되도록 진보적이고 풍부한 교육과정과 함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오늘날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하고 개인지도교수 제도를 학부생들에게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 위릭교육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로 “모든 학생들의 국제화 (every student an international student)”를 말할 수 있다.¹⁰⁾ 즉 대학은 글로벌 경제 하에서 영국 학생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에 다양한 문화와 국제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어교육, 국제 자원봉사, 학생교환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국내외에서 국제감각을 익히고 경험하도록 하는데 이런 면이 영국 학생들에게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더불어 대학은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해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위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은 유학생(the Chancellor's International Scholarships) 장학금을 신설하여 2011-12 학년도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위릭 박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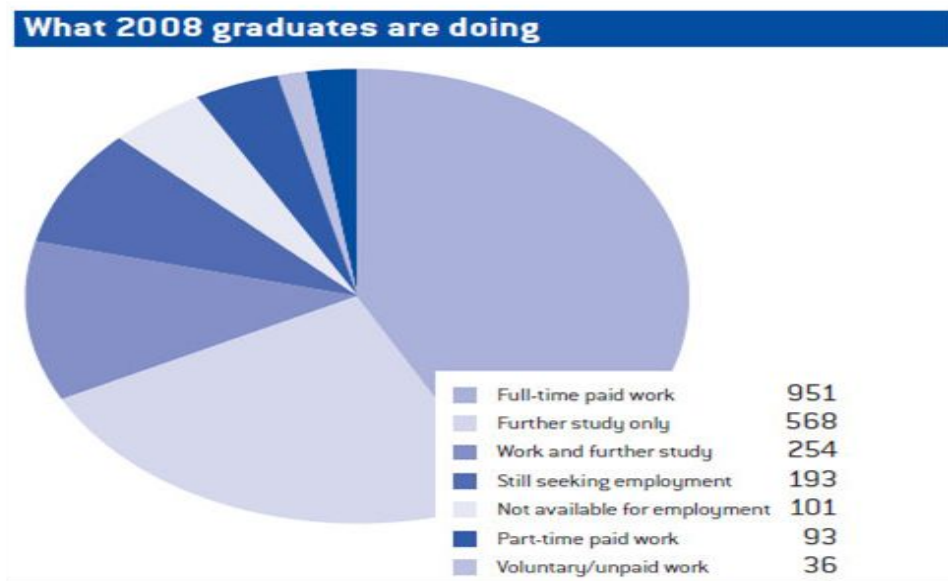
10) <http://www2.warwick.ac.uk/about/vision2015/internationalism/>

- 한편 학부생이 참여하는 국제여름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를 운영하여 뛰어난 학생들에게 워릭에서의 학습을 경험을 하도록 하여 대학원 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 교육과 연구에서의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나쉬대학과 보스턴 대학 (Monash and Boston universities)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하고 아시아와 구미 대학과의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지역의 대학과도 협력을 시작하였다.
- 워릭의 교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대학은 능력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고 이들 학생들이 전문이론과 현장지식 모두를 학습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면서 다양한 진로선택을 하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때 에는 이미 많은 인턴과 현장경험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5) 학생 취업 지원

○ Warwick 대학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은 졸업생들의 진로를 추적하여 조사하는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07-2008 학년도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다음 [그림 III-3] 과 같다 .



[그림 III-3] 2008년 Warwick 졸업생 취업률

출처: <http://www2.warwick.ac.uk/study/undergraduate/careers/destination/>

(2013년 3월)

- 예를 들어 2007-2008 학년도 졸업생들의 취업 상황을 보면 2008년 졸업 후 6개월 후인 2009년에 졸업생의 80%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이나 진학을 한 경우가 87%로 (Essential Warwick 2012)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워릭 졸업생은 금융가를 주도하는 주요 회사('Inner Circle')에 진출하는 영국 내 6개 주요 대학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대졸자의 70% 정도가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워릭 졸업생들도 학위를 받는 동안 익힌 기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6) 워릭 글로벌 인재양성의 특징

- 위릭은 우선 세계 각지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 선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직접 학생들에게 다가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우수한 학생들,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들, 성인학습자 모두가 위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 위릭의 교육은 전문이론과 현장경험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혁신적이고 간 학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소수의 학생 분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국제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세계 각지의 대학과 교류,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에서 국제적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무, 국제적 관점과 경험 등이 특징인 위릭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진로결정 시기에 이미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다. 대학의 인기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위릭의 졸업생들이 위릭 교육의 우수성을 모여주고 있다.

나.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 IOE

1) 대학 소개

- 1902년 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IOE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교육과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1987년 독립적인 학위수여 대학 기관으로 왕실헌장을 받은 이후 교육·연구에서 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내·외에서 교육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 IOE는 오늘날 대학이 처한 상황 즉 영국의 경우 국내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 변

화에 대응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이 사회와 국가 발전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 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증가하는 국제협력과 동시에 심해지는 국제경쟁, 그리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교육과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의 변화 등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대학의 기존 미션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대학발전의 우선순위 등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IOE가 발표한 5개년 단기 발전 전략인 2012-2017 년의 비전에 대해 알아보겠다.

- IOE가 설정한 2017년까지의 단기 비전은 국·내외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교육과 그 관련 사회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장 성공적인 연구기관의 명성과 위치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IOE, 2011)
- 교육은 개인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IOE의 최우선 임무는 교육지식의 발전과 이해를 높여 양질의 교육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IOE는 진실과, 비판적 논지, 사회정의 실현에 헌신하기 위해 통찰력 있고, 깊이 있고 다양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OE는 다음의 목표를 세웠다:
 -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 교육과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 활동을 제공한다.
 - 교육활동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IOE의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 사회 각 분야의 교육·사회연구를 지원한다.
 - 교육연구에 필요한 각 종 자료를 만들어 내고 제공한다.
 - IOE가 전문가들의 모임이 장이 되도록 졸업생들과 교류한다.
 - 비슷한 교육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조직들과 파트너십의 관계를 맺는다.

2) 대학 발전전략

○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 IOE는 평등과 다양성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 통합적 학문연구, 리더십과 혁신, 영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전문가 정신으로 지역과 대학과 협력하여 일하고자 한다.
-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효율적,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 IOE가 추구하는 7가지 우선 발전 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의 수월성 추구
- ② 뛰어난 교육
- ③ 국제적 활동 강화
- ④ 사회적 공헌 확대
- ⑤ 기업적 운영
- ⑥ 통합적 연구 장소
- ⑦ 효율적 운영

- ① 연구의 수월성 추구: IOE의 첫 번째 임무로 여기는 것은 연구활동이다. 교육과 관련 사회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연구의 수월성과 공적가치를 추구한다. 이를 위한 주요 목적과 행동지침은:

- IOE의 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적 명성 향상,
- 새로운 파트너와 재정원을 발굴하여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운영,
- 교직원, 학생,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늘려 연구의 공적활용 향상,
- 대학원 교육과 초기경력개발 지원 등 대학원 강화,
- 대학원 학생들의 학위취득률 향상.

○ IOE는 2001년 이후 시행된 연구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국가 연구자금의

25%를 확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사회 연구에서 핵심 (POWER HOUSE)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연구평가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REF)가 시행되는 2014년에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고자 IOE는 기존의 연구영역, 연구파트너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연구활동을 개척해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② **뛰어난 교육:** IOE는 가장 뛰어난 교육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런 우수한 교육기회를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주요 목적과 행동지침은:

- 다양한 교과과정과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 확립,
- 학생들을 위한 IT 시설 강화,
- IOE의 국제적 명성의 지속적 관리
- 학생들과 졸업생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초기 경력개발 지원,
-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 IOE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도록 수요파악

○ IOE는 교사교육(학부이후)과 박사과정 외에 건강교육, 복지, 행정 등 다양한 전공과 전문영역의 대학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IOE는 학생들의 필요에 귀 기울여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하며 학생들의 학업과 경력개발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한다. 특히 새롭게 경쟁력 있는 학부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강좌와 같은 다양한 교육접근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다.

- ③ **국제적 활동 강화:** IOE의 국제활동을 강화한다. IOE는 이미 설립초기인 1920년대부터 국가정책 개발과, 세계 각 지역에서 각종 기구의 설립과 전문인 양성을 위해 공헌해 왔다.

○ 이러한 국제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기 위해 IOE는 다음의 다섯 가지 목표와 그에 따른 행동지침 등을 설정하였다.

- 해외 학생들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이들을 위한 장학금 확대,
- IOE 교육과정과 학생서비스의 국제화,
- 해외 우수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증진,
- 해외각처의 졸업생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졸업생들의 IOE 국제활동 참여

○ EU 외 지역의 학생들의 참여를 매 년 5%정도 증가로 2017년까지 현재의 20% 증원하고, IOE 졸업생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이들이 IOE 행사와 기부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2010-11 해외 연구기금 (1.5 밀리언 파운드), 자문과 지식이전 (178,000 파운드) 수입을 기준으로 매년 3% 씩 증액을 목표로 한다.

- ④ **사회적 공헌 확대**: 교육과 그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공헌이 런던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수도 런던의 중심부에 위치한 IOE는 교육, 건강, 사회복지 증진을 최우선 임무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회복지와 건강증진서비스를 확대하는 모델을 만들어 실현하고, 학교와 칼리지의 필요를 늘 조사하여 이에 부응하는 열린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⑤ **IOE의 기업적 운영**: IOE의 미션과 가치를 준수하면서 기업적 운영원리를 도입하여 IOE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파트너와 고객을 찾고 연구계약, 컨설팅,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기업가적 운영을 한다

- ⑥ **통합적 연구센터 구축**: 누구에게나 뛰어남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문화를 구축한다. IOE의 성공은 뛰어난 재능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가능해졌다. 따라서 IOE 구성원 누구나 각자의 재능과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 공헌하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간다. 특히 서로의 전문성과 다른 시각을 존중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 등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역할

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 ⑦ **효율적 운영**: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IOE의 교육과 연구 활동 전반에서 더 많은 재정원을 개발하고 건설적인 재정운영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정유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3) 학생 선발

○ 학생선발 규정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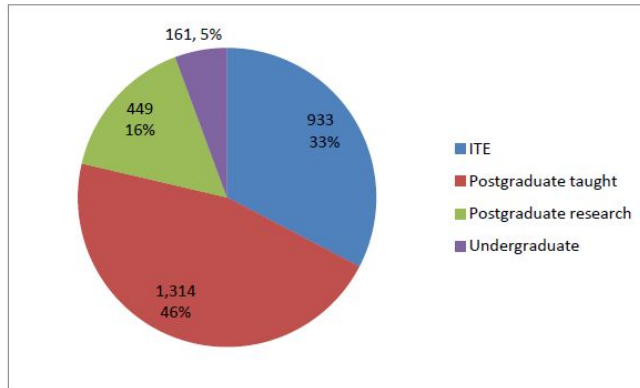
- UCAS 에서 IOE가 학생선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학업능력은 A-level AAB 와, 유학생의 경우 IELTS 7 수준의 영어 능력이다. 대학원중심 교육기관인 IOE에 선발된 학생들은 기본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다.

- 기본적으로 IOE는 공식적인 선발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교수면담에 의하면 엘리트 성격이 강한 현재의 영국정부와는 학생선발에서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IOE는 사회적 소외층 중에 우수한 학생 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소 학업성적이 약한 학생들에게도 IOE에서의 교육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IOE가 엘리트 주의 보다는 누구나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연구중심 대학

- IOE의 2010-11학생 선발을 보면 [그림 III-4]와 같다. IOE는 2010 학년도부터 학부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학원 위주의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학부생은 현재 전체의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2010/11 Student intake (FTE)



[그림 III-4] 2010-2012 신입생 구성

출처: IOE, (2011), *Strategic Plan 2012-17*,

4) 학사관리

○ IOE 교육

- IOE는 가장 뛰어난 교육경험을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과과정과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 IOE는 학부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강좌와 같은 다양한 교육접근 기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대학원중심 이기에 이들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전공과 전문영역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 IOE는 교육의 질을 늘 모니터하고 학생들의 학업과 개인적 문제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 의하는 최상위 수준인 5로 런던소재 대학들 중 최고를 기록하였다. 특히 유학생들이 다른 학문 전통에서 교육 받았음을 고려해 개인 지도교수들은 더 세심한 배려와 지도를 하고 있다.

○ 교수 인터뷰를 통해 본 인재교육

IOE가 추구하는 이러한 교육가치는 Richard Andrews교수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들이 IOE에서 추구하는 교육과 연구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특히 IOE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의 특징과 그런 인재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중요시 하는 교육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 글로벌 인재:

오늘날 누구나 국제이동을 하지는 못 한다 해도 점 점 더 많은 학생들이 국제경험을 익힐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IOE 의 경우 거의60% 정도의 대학원생들은 국제교류의 경험한다. 이러 상황에서 전문영역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갖추어 “국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우수한 자” 들을 오늘날의 글로벌 인재라고 할 수 있겠다.

- IOE 인재양성의 특징:

IOE에 모인 우수한 학생들도 여전히 교육을 통해 더 우수해 질 수 있다는 믿음 아래 ①우수한 페даго지, ②최우수 연구활동, ③우수한 학습경험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IOE의 대학원 교육은 첫째 연구방법론, 팀워크 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연구자의 기본 연구능력 습득에 주력하고, 둘째 연구를 통한 사회통합, 사회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겠다는 이론과 실체가 균형 잡힌 연구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다.

- IOE가 국제도시 런던에 소재한다는 점을 통해 국제 감각을 키우고, IOE의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방대한 양의 세미나, 토론 등에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다양한 견해를 높일 수 있다.

○ 학생 설문조사

IOE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설문 조사결과 학생들은 IOE가 추구하는 전문성과 다양성,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장점으로 여기고 IOE에서의 학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세계 각 처에서 모여드는 전문가, 교육관계자, 교사,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풍부한 세미나와 토론은 IOE를 교육과 연구의 글로벌 센터로 만들고 있으며 이 곳에서 학생들은 실제로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단지 학생들이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사회통합과 발전에 대한 믿음 이외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보는 점은 흥미롭다.

5) 학생 취업지원

- IOE는 차세대 교육과 경력개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MPhil, PhD, EdD, DEdPsy, 연구중심 석사과정 등 다양한 대학원 교육에 역점을 두는 IOE는 영국 내 교육 분야에서 900 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규모의 대학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대학원생들은 IOE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전문성이 한데모여 최상의 교육환경을 형성한다.
- 대학원생들의 학업을 도와 돕고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생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직원과 필요한 시설을 늘려 더욱 효과적인 연구업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박사후 프로그램의 보강도 포함하여 각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을 빨리 습득하여 경쟁력 있는 신진학자들이 되도록 John Adams 경력개발 Fellowshi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훈련과 멘토링 프로그램, 가이드를 통해 독립적인 학자들에게 필요한 소양과 기술을 빨리 습득하도록 돕는다.

6) IOE 글로벌 인재양성의 특징

- “글로벌 인재”의 정의에 대해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IOE의 교육을 통해 오늘날 글로벌 인재란 적어도 다음의 소양을 길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전공학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공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높은 학업성취자들이 세계각처에서 모여들어 함께 공부하고 연

구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하지만 대학은 그 설립 이념에 따라 조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도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IOE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전공 영역과 그에 관련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을 습득하게 되고 연마하는 것이 오늘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가장 기본 소양이라고 본다.

-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이해하는 것은 전문인이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소양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 능력과 다양한 이해집단과 협력하여 더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소양으로 제시된다.

- 글로벌 경험을 갖도록 한다.

국제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대학에서도 학생과 교수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 뿐 만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국가에서의 실제경험은 전문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글로벌 시각을 갖추는 방법이다. 꼭 다른 국가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교수와 학자,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도 글로벌 시각과 경험을 갖는 방법이 될 수 있다.

IV. 미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 분석

1. 미국의 고등교육의 인재양성정책

가. 고등교육 국제화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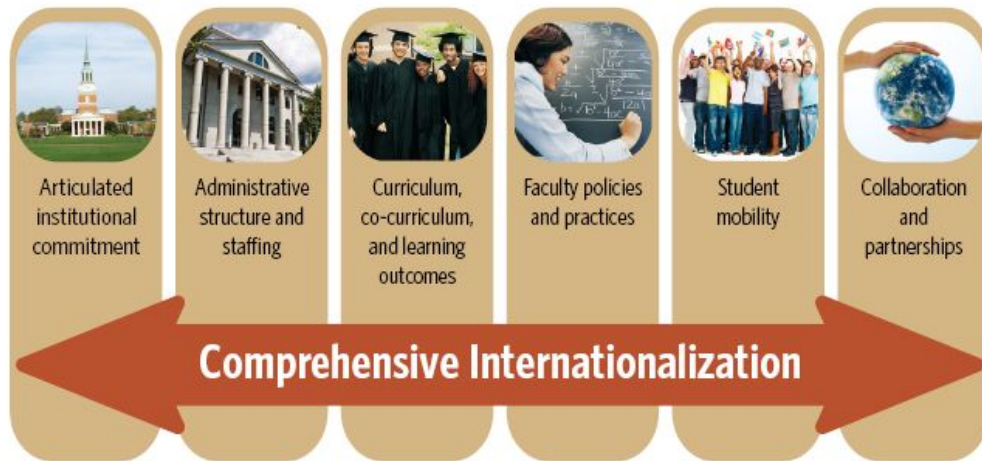
- 미국 대학의 국제경쟁력과 국제교류는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미국은 외국 학생이나 연구자가 가장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외국학생이나 연구자가 미국대학에서 교육받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김경근 외, 2007a; 양승실 외, 2009).
- 매년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에서 발표하는 미국내 외국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도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미국학생의 7.7%에 해당하는 67만 명의 외국학생이 미국에서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국에 유입되는 우수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미국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다. 특히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기를 원하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미국의 유학생 정책이 미국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유지될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 미국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은 연구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와 관련된 각종 국제비교에서 상당히 앞서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박정수 외, 2009).
- 교육성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쉬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 The Times

나 상하이 자이통대 대학평가에서 연구부분은 단연 미국의 대학들이 최상위권을 점하고 있다(김경근 외, 2008; 양정호, 한신일, 이석열, 2007).

- 전 세계 학술논문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1988년에 47만 편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71만 편으로 거의 52%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20만 편 이상이 미국에 있는 연구진에 의해서 쓰였으며 대부분이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가 연구 활동의 결과물로서 제출한 것이다(OECD, 2009).
- 이런 학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외국의 유능한 학생이나 학자들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최근에는 미국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활용해서 외국대학과의 프로그램 교류나 해외에 직접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나. 미국 대학의 국제화 현황(ACE, 2012)

- ACE는 매년 미국 대학의 국제화에 관한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ACE (2012). Mapping Internationalization on U.S. Campuses.)
- 이러한 현황조사는 Articulated institutional commitment,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staffing, Curriculum, co-curriculum, and learning outcomes, Faculty policies and practices, Student mobility,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등 크게 6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미국 대학의 종합적 국제화 모형

1) 분명한 대학 공약(Articulated institutional commitment):

- 2011년에 대략 51%의 대학들은 그들의 사명 선언문이 국제교육이나 글로벌 교육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52%의 대학들은 국제교육이나 국제화와 관련된 분야를 그들의 최신 전략적 계획 중에서 상위 5개 중점 과제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40% 미만의 전문대학들에 비하여 대략 80%의 박사중심대학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2) 행정구조와 지원구성(Administrative structure and staffing):

- 2011년에 50%의 대학은 캠퍼스 국제화 추진을 책임지는 개인이나 사무실이 최고 연구 관리자(chief academic officer)에게 보고한다고 밝혔으며 14%의 대학은 개인이나 사무실이 회장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3)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과 학습 성과(Curriculum, co-curriculum, and learning outcomes:):

- 이는 일반적 교육과 언어 요구, 공동 교육과정 활동과 프로그램, 구체적 학생 학

습 성과 등이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34%의 전문 학위중심대학-90%의 박사중심대학)가 있지만 대다수(55%)의 대학은 학부생 교육과정을 국제화 시키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2011년에 학부생한테 글로벌 동향과 쟁점에 관련된 과목(예를 들어 글로벌 건강 이슈, 글로벌 환경 이슈와 평화에 대한 연구)을 요구하는 대학은 증가했다(24%-28%).

- 공동 교육과정은 모 캠퍼스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설하는 학점이 인정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말한다. 공동 교육과정 프로그램과 활동 중에서, 대학들은 제일 많이 제공하는 것은 지속적인 세계적 축제나 이벤트다. 58%의 대학(20%의 전문학위중심대학-92%의 박사중심대학)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11년에 외국어에 대한 요구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사, 석사와 학사중심대학은 미국학생과 외국학생의 짝을 지어 주는 언어 프로그램이 증가했다.
- 2011년에 국제화에 중점을 둔 학생 학습 성과를 개발하는 대학의 비율은 실질적인 증가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55%의 대학은 구체적인 글로벌 학생 학습 성과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에 10% 포인트를 증가했다.

4) 교직원 정책과 실천(aculty policies and practices):

- 교직원들은 해외의 강좌나 연구 활동이나 다른 나라 연구자와 관계성을 맺는 경험을 통해서 국제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직원들의 국제적인 이동에 관련된 기회는 그들의 국제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 2011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非) 국제적인 분야에서도 교직원을 고용할 때 국제적인 배경, 경험과 관심을 고려하는 대학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 2011년에 교직원들은 해외에 가서 연구하거나 회의를 참여할 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학의 비율은 감소했다.

5) 학생이동(Student mobility):

- 학생 이동은 유학 프로그램, 위국인 학생 모집과 지원 등으로 국내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해외 학습을 참여하는 이동과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역사상 학생 이동을 국제화의 중요한 초점으로 여겼다. 201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보인다.
- 2011년에 대다수의 박사, 석사와 학사중심대학은 외국인 학부생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여타의 학자금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11년에 48%의 박사중심대학, 39%의 석사중심대학과 41%의 학사중심대학은 국제적인 모집 대상을 포함하는 전략적 외국인 학생 모집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13%의 전문대학과 21%의 전문학위중심대학도 이런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지리적으로 모집대상들은 주로 아시아에서 나왔다.

6) 협력과 합작(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 이는 공동 학위 과정이나 복수 학위 과정, 분교 캠퍼스와 다른 해외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수년 동안 국제적 협력은 학생/교직원 교환, 교직원들의 공동 연구와 공식 또는 비공식적 협력 협정의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들은 이런 협력 프로그램과 대학의 국제화중에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 미국 고등교육의 인재양성 정책

- 최근 10여년간 미국의 인재, 특히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정책은 중요한 변화를 하여 왔다. 이 시기에 미국의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에서 발간한 Innovate America와 미국의 한림원(National Academies)에서 발간한 Rising Above the Gathering Storm은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기초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선양 외, 2008).

1) 혁신적인 미국(Innovate America)

- 첫째, 경쟁력위원회에서 발간한 Innovate America에 따르면, 기본적인 전제로서 혁신(innovation)이 21세기를 통틀어 미국의 성공을 결정하는 단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가 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하여 21세기의 생산성, 삶의 질, 세계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그 결과 미국경쟁력위원회는 Innovate America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국가혁신계획(NII: National Innovation)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는데 이는 최근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국가혁신계획은 재능(talent), 투자(investment), 하부구조(infrastructure) 등 세 개의 큰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있어서 이들 세 분야가 대단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쟁력위원회는 이들 세 분야에 있어서 다음의 세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CoC, 2005).
- 먼저, 재능(talent)은 기술혁신의 인적인 측면(human dimension)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지식의 창출, 교육훈련, 인력의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력 위원회는 협력의 문화, 연구와 상업화간의 공생적인 연계, 평생능력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다.
- 투자(investment)는 기술혁신의 재정적 측면(financial dimension)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투자, 위험부담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지원, 장기적인혁신전략의 촉진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는 혁신자들(innovators)에게 혁신에 성공할 수 있는 자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혁신자를 지원하는 물리적, 정책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보, 통신, 보건, 에너지를 위한 네트워크, 지적 재산권 보호, 기업규제,

혁신 이해 관계자들간의 협력구조 등을 포함한다. 경쟁력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계-대학간의 새로운 연계관계, 21세기를 위한 혁신하부구조, 유연한 지적재산권 레짐, 제조기업의 혁신촉진전략, 국가 혁신리더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국가혁신계획의 세부내용은 국가혁신 어젠다(national innovation agenda)로 표현되는데, 본 연구와 관련된 인재 양성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 재능(talent)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능(talent)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국가혁신 어젠다로 구성되어 있다.

- 1)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기술적으로 훈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혁신 교육전략(National Innovation Education Strategy)의 구축

- 과학기술분야의 학부생들을 위하여 세금감면이 가능한 민간기업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 in the Future)” 장학금의 설립
- 연방 연구개발 부처들에 의해 지원을 받는 5,000명의 새로운 대학원생 펠로우십을 설치하여 미국의 젊은 혁신가의 육성
- 모든 주립대학 시스템에 대하여 대학기반 전문과학석사(Professional Science Masters) 제도의 확대
- 전 세계로부터 최고의 과학기술인재를 모집하기 위하여 이민관련 사항을 개혁

- 2) 미국의 차세대 혁신가(Next Generation of American Workers) 육성의 촉진

- 대학에서의 문제해결적 학습을 통한 창조적 사고와 혁신능력의 촉진
- 연구와 응용간의 갭을 메울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기회를 창출
- 창업자 및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한 혁신적 커리큘럼의 설치

- 3) 세계화된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력(Workers to Succeed in the Global Economy)의 양성

- 평생학습기회의 제공을 통한 인력의 유연성 및 재능의 촉진

- 인력의 보건 및 연금 혜택의 증진
-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능을 훈련자원과의 효율적 연계
- 기술과 무역으로 인해 소외된 인력에 대한 지원

2) Rising Above the Gathering Storm

- 미국 한림원(National Academies)의 Rising Above the Gathering Storm 보고서는 미국 하원의 요청으로 발간되었다.
- 이 보고서는 2005년 5월 미국 상원 에너지 및 자연자원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의 요청으로 21세기에 미국이 번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 이에 따라, 미국 한림원은 대학총장, 최고경영자, 노벨상 수상자, 전직 대통령 등 20명을 멤버를 위촉하여 Committee on Prospering in the Global Economy of the 21st Century를 구성하였으며, 60여명의 실무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그동안의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신속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이 보고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초로서 4개의 포괄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총 20개의 특정지침(specific actions)을 제시하였다.
- 네 개의 포괄적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1) Ten Thousand Teachers, Ten Million Minds(초중고 교육시스템의 개선)
 - 2) Sowing the Seeds(장기 기초연구 기반의 강화)
 - 3) Best and Brightest(고등교육의 개선)
 - 4) Incentives for Innovation(혁신환경의 개선)
- 이러한 4개의 포괄적 권고안 중 **고등교육의 개선(Best and Brightest)**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과학, 수학, 공학, 기술 분야의 25,000명의 학부생들에 대한 경쟁 장학금을 신설

- 5,000개의 대학원 펠로우십을 신설하여 미국대학에서 미국시민권자가 국가적 이
해가 달린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도록 유도할 것
- 기업에게 연방정부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종업원들의 평생교육을 촉진할 것
- 외국학생 및 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할 것
- 미국대학에서 과학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학생들에 대해 1년 간 비자연
장을 자동으로 해주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직장을 잡을 경우 자동으로 노동허가
를 제공하고 신속영주권 지위를 부여할 것
- 능력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이민을 허가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 현재의 ‘간주된 수출(deemed exports)’의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의 학생 및 연구
원들이 미국에서 연구하고 일하는 동안 미국의 이익에 해가되지 않는 정보 혹은
연구장비에 대한 필요한 접근을 허락할 것

3)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폴브라이트 사업¹¹⁾

○ 미국 폴브라이트 사업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교육과 문화의 교류를 통해
서 상대국간에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초기에는 폴브라이트법(Fulbright Act of 1946) (Public Law 584) 을 토
대로 운영되다가, 이후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서 새롭게 제정된 교육 문화교
류법(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별칭, 폴브라이트-
헤이즈법(Fulbright-Hays Act))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폴브라이트 장학사업은
국무부의 4개 폴브라이트 사업과 교육부의 4개 폴브라이트-헤이즈 사업 등 총 8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간의 협정에 의한 학생 및 연구자 단위 지
원사업은 국무부의 4개 사업을 의미하며, 미 연방 교육부의 폴브라이트-헤이즈
사업은 미국인을 중심으로 하되 대학을 기반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다. 국무부의
사업은 주로 외국인 유학생 초청사업인 반면, 교육부 사업은 내국인 대학생의
파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2010년 결산 기준 폴브라이트 장학사업의 재원 총액은 약 385.78백만달러이

11) 남수경(2012)의 연구를 요약정리 하였음.

다. 재원 부담주체별로는 미 국무부 재원의 비중이 60.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정부 재원 20.2%, 민간재원 15.1%, 미 교육부 3.8%의 순이었다.

<표 IV-1> 미국의 폴브라이트 사업 주요 내용

지원 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 유형
국무부	▪ 폴브라이트 외국학생 프로그램	외국의 대학원생들이 미국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매년 약 1,650명의 신규 장학생 선발 및 기존 1,300명 갱신 지원	초청
	▪ 폴브라이트 방문학자 프로그램	약 100개국 이상의 850명 정도 외국학자들에게 주로 1년 동안 박사후 연구 지원. 매년 약 1,650명의 신규 장학생 선발 및 기존 1,300명 갱신 지원	초청
	▪ 폴브라이트 교사교환 프로그램	초·중·고 및 (전문)대학 교사, 행정가 교류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미국과 30개국이 약 500명을 1:1로 교류하는 것과 소수의 일방교류 포함	초청 및 파견
	▪ 험프리 펠로십 프로그램	각국의 우수한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들에게 대학원 수준의 학문 및 전문성 제고 기회 제공. 1978년 프로그램 출발이후 140개국 약 3,400명 지원	초청
교육부	▪ 폴브라이트-헤이즈 박사논문 해외 연구 지원 사업	6개월에서 12개월동안 다른 나라에서 현대 외국어나 지역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에게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파견
	▪ 폴브라이트-헤이즈 교수진 해외연구 펠로우십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현대 외국어와 지역학 연구를 개발하고 증진	파견
	▪ 폴브라이트-헤이즈 그룹 해외프로젝트 프로그램	현대 외국어와 지역학 분야의 훈련, 연구,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교사, 학생, 교수진 등에 대한 해외 프로젝트 지원	파견
	▪ 폴브라이트-헤이즈 해외세미나 양국지원프로젝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분야의 미국 교육자를 위한 단기 해외 수학 및 여행 세미나 지원	파견

○ 한편, 2007~2008년부터 2009~2010년까지 최근 3년간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외국 정부의 재원 지원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폴브라이트 장학금의 경우 양자 협력이나 교류 형태로 시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재원 비중은 점차 미국의 상대국 지원 중심에서 수혜 상대국의 지원 확대 방향으로 사업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9~2010년 결산 기준 폴브라이트 장학사업의 유형별로 외국정부의 재원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학생 및 학자대상사업의 경우 파키스탄, 스페인, 독일, 한국 순으로, 교사 및 행정가교환사업의 경우

독일, 멕시코, 영국 순으로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험프리 사업의 경우 외국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만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국 대학의 글로벌 인재양성 사례

- 미국 대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 사례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뉴욕주립대학(New York University: NYU)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뉴욕주립대학은 전통적으로 높은 명성을 자랑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하고 있는 국제화된 대학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이들의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가. 학생선발

1) 학생선발 개관

- 미국 대학들의 입학경쟁률은 매우 다양해서, 고등학교 졸업장 소지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의 지원자 모두가 입학이 가능한(외국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개방형의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이 있는 반면,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응시자의 아주 낮은 비율만이 합격이 가능한 연구중심대학이나 자유교양학부대학(liberal arts colleges)도 있다.
- 경쟁이 치열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은 여러 개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원서에는 보통 고등학교 성적표, 표준화된 대학입학시험 점수, 과외활동이나 지역 사회 봉사활동 실적, 그리고 대학에서 제시한 주제에 관한 에세이 등이 포함된다.
- 입학사정의 기준은 대학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학교의 설립 이념에 부합하는 입학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일부 대학들의 입학사정은 학생의 고교성적, 입학시험 점수, 추천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언어 능력, 지역사회 및 리더십 활동, 그리고 에세이 등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 경쟁률이 높은 대학에서는 응시생에게 등록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 전에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합격여부에 대한 결정이 모든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끝날 때까지 지연되기도 한다. 이들 대학은 고교 성적, 입학 시험 점수, 기타 요소들에 대해 각기 다양한 가중치를 두고 평가한다.

○ **대학원 입학**은 대학 기관차원에서 담당하기 보다는 학과나 단과대학이 담당한다.

- 비전문 대학원(nonprofessional)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대학 차원의 입학신청서 양식이 있지만, 입학에 대한 의사결정은 학생이 지원하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결정된다.
- 이 분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미국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이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인 GRE(대학입학자격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의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 법학,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자체적인 입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분야들의 경우 의학입문시험이나 법학입문시험과 같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시험 점수를 중요한 결정요소로 사용한다.
- 일반적으로 학부 성적, 하나 이상의 표준화시험 점수, 학부 출신 학과의 추천서 등이 입학 신청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2) 학생선발 사례

- 뉴욕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경우 다른 우수한 대학에 합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욕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좀 더 국제화 된 생각을 가지고, 독립적이며, 도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이 뉴욕대학을 선호하고 있었다.

- 이러한 학생들 중에는 이미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를 접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뉴욕대학에서 이전에 수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뉴욕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았다. 이들은 뉴욕대학이 자신들의 국제화 능력을 신장하였으며, 다양한 문화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 이러한 요소들은 세계의 우수한 인재가 뉴욕대학으로 지원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뉴욕대학이 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나. 학사관리

1) 학사관리 개관

- 미국 대학의 일반적인 학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 학년도(academic year)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개시되어 4월 말에서 5월 중에 종료되며,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학사일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은 연간 2학기제(semester)로 운영되는데, 한 학기는 기말고사기간 1주를 포함한 16주로 구성된다. 가을학기는 12월 중순에 끝나고, 봄학기는 1월 중에 시작된다. 일부 대학, 특히 자유교양학부대학(liberal arts college)의 경우 1월이나 5월 경에 3-4주 단위의 학기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은 이 시기에 한 과목을 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많은 대학에서 여름학기(summer session)를 운영하는데, 여름학기는 6주 과정(session) 2개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각 과정(session)별로 1-2개의 과목에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여름학기의 경우, 가을학기나 봄학기에 비해 수강 가능한 과목의 선택 범위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며, 학생들이 여름학기를 꼭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비록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통적인 9개월(2학기제) 학사일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요구와 스케줄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사일정을 혁신하여 단기강좌, 중복 학기(overlapping semester), 압축적인 주말강좌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일부 대학들의 경우 4학기제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10주 과정 3개 학기와 여름 학기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각 학기별로 3-4개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2학기제에서 학기별로 5개 과목을 수강하는 것과 비교된다. 지난 10년 동안 4학기제를 도입했던 많은 대학들이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2학기제를 다시 채택하기는 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4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 미국 대학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이수학점 관련 부분에서 일부 언급된 바 있다.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생들이 120학점 이상 또는 동등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이 교육과정 구성의 출발점이다. 기초학력 수준이 상이하여 학문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에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학이나 건축학과 같이 이수해야 할 과목의 요구조건이 더 많은 분야의 경우 졸업학점을 120학점으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5년제 학제를 시행하고, 전문학위인 석사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반면 인문학 등 자유교양분야의 경우 120학 점보다 적은 이수학점이 필요하며, 자유선택과목들을 수강하게 된다.
- 졸업에 필요한 120학점은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 전공교육(major), 그리고 전공분야에 따라 자유선택과목(free electives)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120학점 중 전공교육 및 관련분야의 학점 비중은 최대 90학점(예를 들어 공학, 음악분야)부터 최소 36학점(대부분의 인문학, 사회과학분야)까지 학문분야별로 상이하다. 교양교육은 적게는 30학점부터 많게는 절반까지 차지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36학점에서 42학점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일부 학생들은 자유선택과목을 수강할 여력이 전혀 없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3분의 1 이상을 자유선택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후자의 경우 복수전공(double majoring)으로 알려진 두 번째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2) 학사관리 사례

- 뉴욕대학의 경우 글로벌 인재 양성에 관한 특별한 학사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각 단과대학과 학과별 또는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이와 관련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 뉴욕대학의 글로벌화 또는 국제화와 관련한 특징 중의 하나는 다양하고 풍부한 국제화 문화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모두 다양한 인종과 국가들의 학생들과 서로 어울리며, 나아가 교수들 역시 폭넓은 국제적 관점을 갖고 있어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교수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뉴욕대학은 또한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은 크고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강의평가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수업이 국제화 또는 국제적 관점을 강조하는지를 묻도록 하고 있고, 대학생활 기간 중에도 해외 인턴십이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V.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글로벌 인재양성 방안

1. 영국과 미국 대학의 글로벌 인재양성 모델 분석

- 영국과 미국 대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은 한마디로 대학중심의 인재 양성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글로벌 인재 양성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이 사업추진의 단위가 됨과 동시에 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국과 미국 정부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주도하지 않는다. 영국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우수한 고등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효율적인 재정운영 제도, 학생들의 참여증진을 위한 지원제도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하고 키울 수 있는 정책지원에 힘쓴다.
- 영국과 미국은 소수의 인재보다 영국의 우수한 대학을 활용해 다수의 인재양성에 관심을 갖는다. 지역과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세계무대에서 일 할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인재양성에 주력한다.
-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요한 과학, 기술, 순수학문의 발전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요학문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 따라서 영국과 미국의 인재 양성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대학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학은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시각과 감각을 이해하는 전문인을 키우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글로벌 인재 양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대학의 뛰어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 대학은 대학의 미션과 가치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기업, 지역과 협력하여 풍부한 연구환경을 형성하여 세계 각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독특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다.
- 사례 대학들은 세계 각처의 우수 대학과 교류·협력하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 기업,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이러한 협력활동을 통해 지식전수와 컨설팅에 앞장서고,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열린 공동체가 글로벌 공동체를 이루고, 이곳에서 학생들은 글로벌 가치와 감각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다.
- 이러한 사례 국가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 특성을 하나의 모델로 구체화하면 대학 중심 글로벌 인재양성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글로벌인재 양성에는 우수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한국의 글로벌 인재양성 모델 탐색

- 정부주도의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 극복
 -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글로벌 인재양성 보다는 대학의 국제화 즉 국제교류와 국제어 수업 등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었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글로벌 인재의 자질과 소양에 대한 고찰이 매우 부족했다. 따라서 정부주도 국제화 정책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적합한 정책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 정부주도 정책 하에서 많은 대학들은 정부의 국제화 지수에 관심을 갖고 대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각 각의 대학이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는 소홀했다.

- 정부가 주도하는 인재양성은 소수 엘리트 양성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집단지성과 다양성,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다수의 인재가 필요하다.

○ 대학중심의 인재양성으로 전환

- 인재의 질은 교육에 달려 있다. 대학이 국제화 평가에 매달려 정부가 제안한 국제화 수치를 올리는 것에 집중해서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
- 대학은 각 각의 미션과 가치에 따라 독특한 인재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각 대학은 독특한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 글로벌 시대에는 전문지식만으로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없다.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 인재가 글로벌 인재이다. 이러한 인재는 단지 국제교류만으로는 키워지지 않는다. 글로벌 가치와 시각이 녹아든 통합적이고 간학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하고, 국제경험으로 현장이해를 높여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VI. 연구 요약 및 제언

1. 연구 요약

가. 영국의 고등교육 정책과 인재양성

- 영국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 첫째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 기술, 고 지식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 참여 확대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제공하는 우수한 교육을 더 많은 영국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영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 정부의 두 번째 관심은 양적으로 성장한 고등교육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효율적 운영이다. 정부재정에 의존해 온 고등교육 기관이 다른 국가들의 우수 대학들과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고등교육의 재정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학생들이 교육비 전액을 부담하게 하고 대신 정부의 재정지원은 좀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 정부의 세 번째 관심은 지식기반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 지원을 위해 STEM 분야에 전략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세계적으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대학들은 이미 세계 각 국에서 모여든 인재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대해 직접적인 정책관여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우수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제도적인 재정적 지원방안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 영국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특정 소수 그룹을 대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 정부

의 관심은 영국대학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대학은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영국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2012-13년 학비제도 도입 이후 영국의 학생들이 학비부담으로 대학원진학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보고들이 발표 되면서 정부의 대학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현황을 고려하여 우수한 영국학생들이 대학원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나. 미국의 고등교육 정책과 인재양성

- 미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은 일차적으로 대학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수준에서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큰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실질적인 국제화를 진행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대학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학의 국제경쟁력과 국제교류는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은 외국학생이나 연구자가 가장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외국학생이나 연구자가 미국대학에서 교육받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미국의 대학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국제화를 교육목표에 추가하거나 국제화를 위한 행정조직과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아가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상호협력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수한 자원과 높은 명성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다.

- 사례연구 결과, 뉴욕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은 좀 더 국제화 된 생각을 가지고, 독립적이며, 도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학생들 중에는 이미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를 접한 경우가 많으며, 뉴욕대학에서 이전에 수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뉴욕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았다. 이들은 뉴욕대학이 자신들의 국제화 능력을 신장하였으며, 다양한 문화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 뉴욕대학의 글로벌화 또는 국제화와 관련한 특징 중의 하나는 다양하고 풍부한 국제화 문화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모두 다양한 인종과 국가들의 학생들과 서로 어울리며, 나아가 교수들 역시 폭넓은 국제적 관점을 갖고 있어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교수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뉴욕대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국제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크고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강의평가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수업이 국제화 또는 국제적 관점을 강조하는지를 묻도록 하고 있고, 대학생활 기간 중에도 해외 인턴십이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2. 제언

가. 글로벌 인재를 위한 적극적 모집 필요

- 우선적으로 세계 각지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 선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직접 학생들에게 다가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우수한 학생들,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들, 성인학습자 모두가 한국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필요

-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글로벌 인재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없지만 런던대학의 경우는 글로벌 인재를 전공학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공 지식을 갖추고,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하며, 글로벌 경험을 갖는 인재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 능력과 다양한 이해집단과 협력하여 더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소양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국제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대학에서도 학생과 교수의 이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의 실무경험 뿐 만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국가에서의 실제경험은 전문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글로벌 시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다.
- 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간 학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소수의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국제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나아가 세계 각지의 대학과 교류,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에서 국제적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 대학중심의 국제화와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의 국제화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따라서 대학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6).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정책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
- 국제교육원, “정부해외인턴사업”, <http://www.ggi.go.kr/wp.do>
- 국제교육정보화국(2005). Study Korea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 국외인적자원정책과 내부자료.
- 박정수 외(2009).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한국교육개발원.
- 유성상(2012). 국제직업능력개발 캠퍼스 방향과 체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경숙(2007).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교육위원회
- 이종재(2012). 우수외국대학의 유치와 고등교육의 국제화. 한국연구재단
- 임천순(2010). WEST프로그램의 발전방향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임천순·양병무(2006). 대학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24(3), 1-26.
- 정선양 외(2008). 새로운 정책 환경에 따른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진미석 외(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연구. 2007-공모-30. 교육인적자원부.
- 최두현(2008).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대학생해외 인턴십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최정윤(2008).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하연섭(2008).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편). 창의적 인재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제32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국제화시대의 대학 영어강의, 그 진단과 방향.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광복관 2011년 6월 3일.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2010),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대학생 국내외 봉사

활동 사업 주요 사업 안내”.

홍영란(2008). 국가인재육성의 개념과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편). 창의적 인재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2007). A Brief Guide to U.S. Higher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 (2008). 미국 대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BIS, (2011), White Paper: Higher Education – Students at the Centre of the System.

Brown, R., (2011), *Comparability of Degree Standard?*

Clark, T., (2006), *OECD Thematic Review of Tertiary Education–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OECD.

DES, (1985),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to the 1990s*.

DfES, (2006), *Widening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HEFCE, (2010) Strategically Important and Valuable Subjects: the HEFCE Advisory Group's 2009 Report.

HEFCE, (2010), *Issue Paper: Trends in Young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core results for England*.

Institute of Education, (2011), *Strategic Plan 2012–17*, IOE.

Lord Sainsbury, (2007), *The Race to the Top, A Review of Government's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HMSO UK.

National Committee of Inquiry into Higher Education, (1997), Higher Education in the Learning Society, Summary Report, Great Britain.

QAA, (2011), *Mini Guide: a brief student guide to institutional review*.

United Kingdom, (2004), *Higher Education Act 2004*.

University of Warwick, (2011), *Essential Warwick 2012*, University of Warwick.